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2008 **7** 제185호(통권 404호)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수업은 교사의 얼굴입니다 / 교육감

영원한 교육 사랑의 현장, 박연묵 교육박물관을 찾아서

장학특집 - 교실수업 개선

전문가 초대석 / 학교 수업 중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의 조치요무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장/학/갤/러/리



# 7월의 노래



된서리를 밟으며 변방을 지켜오다  
아, 이젠 가슴 내밀며  
누군가를 사랑할 때  
버즘 핀  
해바라기가  
물이 올라 벵글거리네.

끝없이 솟구쳐 천지 환한 내 젊음이  
가파른 길 씩없이 오르던 꿈길에서  
그립다  
질펀히 깔린  
내 안의 초록빛이여.

밤벌레 우는 소리 이파리 물들기 전에  
지금은 마음 여미며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때  
안개비  
젖어드는 길목  
흔들리는 외등 밑에서.

---

• 글 : 김진희 (창원 신월초등학교 교사)



# 수업은 교사의



교직이 성스러운 것은 소중한 인간의 성장을 책임진 길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귀중한 삶을 우리에게 맡겼으며, 우리는 그 사명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교사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활동은 수업입니다. 소중하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치밀한 수업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과서는 가르칠 내용을 잘 정리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지만 교육과정은 가르쳐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목표한 교육과정에 도달하도록 교과서를 위시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에 초점을 맞출 대상은 착실

# 얼굴입니다

하고 모범적인 학생만이 아닙니다. 옆드려 있거나 짠 짓을 하거나 그 교실에 있는 학생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학생 모두를 시선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각자에게 알맞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이해와 깨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없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깨침을 얻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이해와 깨침을 얻고 만족하는 학생들을 볼 때 교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학생들만큼은 내 수업이 최고인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경상남도교육감



#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 교육 시책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 교육
-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 행정

##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 지도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                        |   |
|------------------------|---|
| 1 장학갤러리                | • 7월의 노래 / 김진희                                  |
| 2 권두언                  | • 수업은 교사의 얼굴입니다 / 교육감                           |
| 6 기획시리즈                | • 영원한 교육 사랑의 현장, 박연묵 교육박물관을 찾아서 / 편집부           |
| 14 장학특집 <b>교실수업 개선</b> | • 경남초등교육과정연구회의 발자취 / 김점성                        |
|                        | • 수업전문가들의 열띤 경연의 장에서 / 김배일                      |
|                        | • 초등 학습지도연구대회 기획과 운영 / 김종식                      |
|                        | • 학습지도연구대회를 마치고 / 조은주                           |
|                        | • 배움이 있는 교실 속 수업 만들기 / 박이영                      |
|                        | • 교사가 준비한 만큼 학생들은 즐겁다! / 양상수                    |
| 28 전문가 초대석             | • 학교 수업 중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의 조치의무 / 김현규              |
|                        | • 교원의 정신건강(7) / 이재경                             |
| 32 수업기술 나누기            | • 아이들이 즐거운 음악시간 만들기 / 문종녀                       |
|                        | • 변조는 창의력이다 / 류재홍                               |
|                        | • 협동학습 실천을 위한 '협동적 학습운영' / 이소영                  |
|                        | •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지도(2) / 임경미                     |
| 41 교육정보                |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용방안 / 강주                          |
|                        | • IDP(개인계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영어집중교육 / 최용환              |
|                        | • "새미학습"에서 만나는 여름방학 / 박상섭                       |
| 49 현장포커스               | • 특색교육활동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반올림하는 남해해성고등학교 / 정창호        |
| 52 참여마당                | • 교원 마당 - '나'를 간직해 줄 수 있는 곳, '사이버 학교 역사관' / 안명영 |
|                        | • 학부모 마당 - 토요일학놀이터를 다녀와서 / 임항영                  |
|                        | - 엄마 표 도시락 / 이상숙                                |
|                        | • 학생 마당 - 2008 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를 다녀와서 / 이선우         |
|                        | - 토끼풀 꽃 / 손희원                                   |
| 62 향기나는 서가             | •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칭찬학습법 외 4편                        |
| 65 교원지상갤러리             | • 발전하는 거제 / 노순영                                 |
|                        | ▶ 표지사진 - 박재철(마산 호계초등학교)                         |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janghak@gnedu.net

2008년 7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광보
- 편집위원 :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 영원한 교육 사랑의 현장, 박연묵 교육박물관을 찾아서

일 시 : 2008.06.13일(금)

장 소 : 박연묵교육박물관 (사천시 용현면)

대 담 : 박연묵(박물관장), 임성택(도교육청 장학관)

배 석 : 신현권(삼천포초등학교장), 심광보(도교육청 장학사),  
박명환(교육홍보사)



사랑=인연=추억(교직생활)

사천시 용현면에 소재한 '박연묵교육박물관'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보람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특별함'이 있는 박물관이다. 관장 박연묵 선생님은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박연묵 선생님의 교직 일생은 틀림없이 성공한 삶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 교직에 평생 몸담으시다 은퇴하시고 교육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평소 갖고 계시는 교육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은퇴를 하면 교육과는 거리가 먼 취미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교육'이라는 끈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삽니다. 교육관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를 사랑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으로 헌직에 있을 때는 정성을 다해 가르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면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퇴직한 지금도 제자 사랑과 교육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교육박물관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박물관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6년도 교육개혁 박람회 때 자료를 소개하면서부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교과서, 참고서, 학용품 등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천성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에 들어서는 30년 동안 담임한 학생의 명단과 사진은 물론이고 제자들로부터 받은 편지 1,500여 통의 원안까지도 모아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사용했던 것들이라 정이 들어있고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아깝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는데, 교사에게는 제자가 가장 소중한 보배라는 인식을 하면서는 교육활동의 자료들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들 자료가 후배 교육자와 2세들에게 소중한게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여 더욱 열심히 모으게 된 것입니다.

박연묵 선생님은 '한국의 동란'이라는 낡은 책 한권을 뽑았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12월에 발행된 책인데, 이 책에는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김일성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중학생이던 박연묵 소년은 이 책을 공산군이 알면 보복할까 봐 숨겨두었다가 경찰관에게 잠시 보여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 책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여섯 번이나 찾아 갔다고 한다. 그 이후에는 '책은 돌리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는다'는 철칙을 갖게 되었다며 껄껄 웃는다.

■ 교육박물관에는 군정시절의 교과서를 비롯해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들이 많아 교육적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의 규모와 소장 자료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박물관이 위치한 이 터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데, 총 면적은 약 13,000㎡(4,000평)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본채와 아래채는 선친께서 지으신 건물로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던 방과, 교사로 재직할 때 사용하던 방에 유물을 전시하기 시작하여 오늘의 박물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크고 작은 건물 9동으로 박물관을 구성하였는데, 제1전시관은 교사 시절의 집, 제2전시관은 학창 시절의 방, 제3전시관은 책방, 제4전시관은 자료방, 제5전시관은 농기구의 집, 제6전시관은 우마차고, 제7전시관은 추억의 집, 제8전시관은 옛날 생활의 집, 제9전시관은 그림의 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6·25전의 교과서



70~80년대 참고서와 어린이잡지



학생시절부터 교사시절까지 사용한서재

여기에 전시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교과서를 비롯하여 8,000여 장서와 시청각 등 교육 관련 자료 200여점, 민속자료 80여점, 기타 자료 300여점입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에는 8,000여 그루의 녹차나무와 야생화 등 150여종의 수종이 자라고 있으며 연중 꽃이 피고 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교육박물관의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특별한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 현재까지 박물관을 관람한 인원은 약 3,500명입니다. 이들 방문객의 대부분은 학생이거나 선생님들입니다. 주로 교육기관이나 학교 단위의 교직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현장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교육청과 진주교육청에서는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우리 박물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새내기 선생님의 교직원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을 맛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족 단위의 '우리 자연, 우리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주5일제의 건전한 여가 활용에도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묵 선생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귀중한 자료로 보이는 것 같다. 오늘도 고을마다 찾아가서 마을의 전경과 주요 건물을 촬영한다. 교회와 사찰도 빠지 않고 촬영하고 기록하며 옛 지명을 살려서 마을의 현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연묵 선생님의 이런 노력이 아니었다면 시청 터의 옛 모습이며, 사라진 정미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든다.

■ **교육박물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저는 박물관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2006년 사천교육청에서 안내 팸플릿 인쇄와 안내 간판 설치, 그리고 낡은 커튼을 교체해 주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다 보니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많은 관람객이 오면 도리 없이 불편을 끼치게 되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박물관은 교육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것 같습니다. 교육박물관을 통하여**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선생님께서 평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살아온 흔적, 제가 열정을 쏟은 이 자료들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에 담긴 역사성과 시대정신은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의 발자취를 통하여 학교나 교육의 과거와 애환을 더듬어 보고 현재와 미래의 시대에 적응하고 창조해가는 장과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교육대학 학생들, 신규교사들의 직무연수를 통하여 학생을 어떤 마음으로 지도하고, 학습실적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말없는 웅변으로 보여줌으로써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오늘날 많은 학교가 '학교 역사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설치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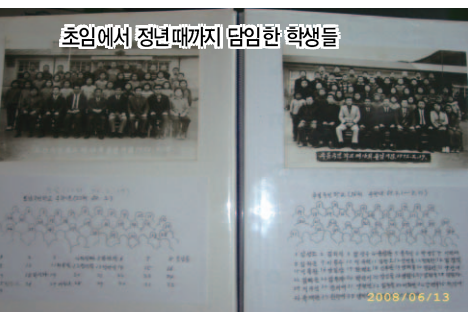
▶ 학교 역사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자료가 빈약하여 많은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산과 기록물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한 점 두 점 교육 활동 자료를 모으면 먼 훗날 훌륭한 알찬 역사관이 될 것입니다.

■ 끝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보람이나 특별한 감회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 얼마 전에는 대기업의 직원들이 단체 관람을 왔습니다. 그 분들이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저를 닮는 교직생활을 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내 손을 잡고,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인사하거나,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오면 안돼요?'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마다 행복해집니다.

'박연묵교육박물관'은 어찌 보면 초라하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최첨단의 초현대식 시설에 비하면 보잘것없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박하고 진솔한 삶의 애환이 담긴 이곳의 자료들은 최첨단 시설의 박물관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감동을 준다. 교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절절히 가르쳐 주는 박연묵교육박물관은 한국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다. 경남교육은 이 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 경남초등교육과정연구회의 발자취



김 점 성

경남초등교육과정연구회  
(마산 진전초등학교 교장)

## 1.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경남지회로 출발하여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경남지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 학년·학급교육과정,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의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전국 초등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교육행정가 및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연구회로서 초등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연구하며, 이의 개선을 통해 초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회입니다.

## 2. 지역교과서연구회는 왜 필요한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특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제도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인정도서 승인권이 주어졌고, 각 시·도에서 개발·승인된 시·도별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 교재인 ‘우리들은 1학년’ 교과용 도서, 사회과탐구 4-1의 교사용 지도서이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활용 중인 사회과 3학년 지역 교과서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 분석, 자료수집, 편집 등의 경험과 실적이 누적되어 있는 교단 현장의 선생님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결성 과정은?

- 1993년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 연구 및 보급  
입학 초기 학교 적응 활동 교재 개발(우리들은 1학년)
- 1994년 : 1종 도서 4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편찬  
초등학교 방학 생활 연차적 개발 보급
- 1995년 : 사회과탐구(4-1) 실험 적용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보급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지역 교과서 개발, 실험
- 1996년 : 한국 초등교육과정 연구회 창립(충남 대전, 63명 참석)  
시·도별 지회 조직 추진(15개 지회)  
1996년도 연차대회 추진 및 세미나 준비  
시·도별 지회 시·도교육청 등록 추진  
전국중앙회 교육부 등록 추진

### 4.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

#### 가. 조직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는 중앙회와 15개 시·도지회로 조직됩니다. 각 지회는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참여하며, 독자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 주요 사업 계획

- 연구 논문지 및 학회지 발간
- 자율연수회, 강습회, 세미나 주관 개최
- 교육과정 지역화 및 지역 교과서 편찬 업무 지원
- 교과서 활용 자료 개발 보급
- 중앙회 연구과제 공동 참여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 5. 초등교육과정연구회 경남지회의 발자취

초등교육과정연구회는 교직의 전문성 심화와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1996년 8월 경남 마산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창립하였고, 현재 200여명의 회원들이 한국교육과정연구회와 경남초등교육과정연구회에 등록하여, 전국규모 연차대회 참여,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학교교육과정, 학년·학급 교육과정, 교과교육,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수·학습자료, 중앙회 위탁과제 해결, 회원 개인 연구, 교육과정 개선자료 등 부단한 연수를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 한국초등교육과정 연구회 및 경남지회 활동

| 대회일         | 대회 및 활동내역  | 비고                         |
|-------------|--|----------------------------|
| 1996년 3월    |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창립총회(충남 대전)  | 경남지회 창립(1996)              |
| 매년 8월       | 전국 연차대회 실시(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울산, 제주, 경남(마산)) | 경남지회 자체연수회<br>· 지정과제 해결    |
| 1999년 1~12월 | 교육부 전국단위 교과연구회 자율과제 실천연구회 지정 공동참여                                  | “                          |
| 2000년 1~12월 | 교육부 전국단위 교과연구회 자율과제 실천연구회 지정 공동참여                                  | “                          |
| 2000년 1~12월 | 교육부 정책과제 수입(제7차 교육과정·교과서에 나타난 국가 사회적 요구분석연구:연구책임자 김정기)             | “                          |
| 2001년 1~12월 | 교육부 전국단위 교과연구회 자율과제 실천연구회 지정 공동참여                                  | “                          |
| 2001년 9~12월 | 교육부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수입(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서활용 방법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류연수)  | “                          |
| 2007년 8월    | 제12차 전국연차대회 (경남지회에서 주관:경남 마산)                                      | “                          |
| 2008년 8월    | 제13차 전국연차대회 예정(대전)   | 수업명사 초청 학습지도법 연수대회(200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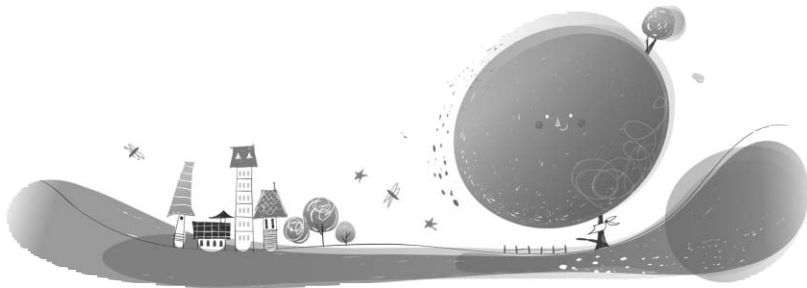
## 6. 연구회 홈페이지 소개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 홈페이지(<http://ecuri.or.kr>)는 연구회 소개와 더불어 해마다 실시한 연차대회, 외부기관 위탁과제 및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자료실, 아이디어 나눔방, 교육과정 개선의견, 전국지회 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경남지회인 경남초등교육과정연구회 홈페이지(<http://kyeongnam.ecuri.or.kr>)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앞으로의 전망은?

한국초등교육과정연구회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구, 실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예견됩니다.

-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특성화 연구의 활성화
- 교육과정의 지역화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촉진
-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
- 전문적인 교수·학습 방법 노하우의 일반화
-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학습자의 수준에 맞고 지역 실정에 맞는 수준 높은 교과서의 개발



## 수업전문가들의 열띤 경연의 장에서



김 배 일  
창원 토월초등학교 교감

### 1. 수업 컨설팅은 수업 공개로부터

프로선수들은 개인훈련, 전지훈련, 비디오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유지, 개발하며 극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들의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각종 공식경기의 출전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또한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공식경기는 바로 현장의 수업이며, 좋은 수업을 통한 교사로로서의 전문성은 바로 이 현장의 수업을 통해 인정받는다.

모든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신장시키기 위해 프로 선수들처럼 개인연수, 동호회 활동, 향시수업공개교사,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등과 같은 훈련과 대회 참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노력한다.

그 중 전문가로서 그리고 학습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은 수업 공개라 생각하며 매년 열리는 학습지도연구대회는 이런 점에서 수업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컨설팅 자리라 여겨진다.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여 수업 컨설턴트에게 피드백(feed back)을 받아 다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의 각 영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프로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높이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다.





## 2. 수업전문가들의 열띤 경연의 장에서

먼저 이번 학습지도연구대회에 참가한 수업자 및 지원팀의 교사들에게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많은 교사들에게 좋은 수업을 보여주고, 자기 연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연구대회는 여느 대회와는 달리 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선의 실제 수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 대회보다 한 걸음 더 발전된 대회였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는 교수·학습 자료 총량제, 예선대회와 본선대회간의 일정 단축 등을 통해 본선대회의 수업 준비로 인한 많은 폐해들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또한 참가하는 교사들의 인식전환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수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또한 실제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료의 투입과 다이나믹하고 의미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는지를 관점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심사소감에서 지적한 심사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자료, 학생들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학습 자료,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사의 발문과 몸짓,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는 자료, 학습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교수·학습 과정안, 친근감 있는 교수·학습활동, 놀이나 게임을 통한 학생들의 흥미 유발 아이디어, 일반화할 수 있는 아동의 개인 자료 개발과 투입, 그리고 계절에 맞는 소재 선정 등으로 학습지도 방법 개선자료로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멋진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 3. 진정한 프로를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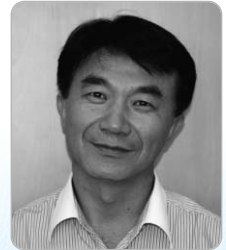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모두 좋은 수업을 공개하였고, 수준 높은 예선과 본선대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러한 자기 연찬의 과정을 통하여 공개한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좋은 수업에 대한 멘토(mentor)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해 나가야 한다. 그런 고민들과 노력들 가운데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고 의미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수업의 프로로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수많은 공개 수업을 통해 진정한 프로로서 거듭나야 하며,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연수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 또한 게을리 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수업명사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학교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 초등 학습지도연구대회 기획과 운영



김 종 식

경상남도청원교육청 장학사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학습지도연구대회 업무를 맡게 되었다. 지난해의 사전 협의, 사후 반성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심정으로 교사가 원하는 운영형태나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교사의 학습지도능력을 종합적이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회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도 고민해 보았다.

우선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분석해 보니 예선대회에서 지도안 작성하기로써 수업설계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모두 같았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몇 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지도안 작성시 참고자료를 보고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본선대회의 수업을 예선대회 지도안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참여열기와 대회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참고자료 없이 예선대회를 실시하고 본선대회는 예선대회 통과 지도안과는 별개로 수업자와 수업지원팀의 협의로 연구되고 그에 따라 수업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였다.

## 1. 기초 조사

2008. 교육연구대회 실시 계획은 대회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이였다. 교사들의 참여 열기가 매우 높은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내용이었다. 그래서 교과별 참가 희망자를 조사하여 1개 학년 1개 교과, 총 6개 교과로 대회 규모를 확대하였다.

### 〈 기초 조사 결과 〉

| 교과  | 비생 | 슬생 | 즐생 | 국어 | 도덕 | 사회 | 수학 | 과학 | 실과 | 체육 | 음악 | 미술 | 영어 | 계   |
|-----|----|----|----|----|----|----|----|----|----|----|----|----|----|-----|
| 희망자 | 4  | 9  | 5  | 34 | 1  | 18 | 27 | 15 | 0  | 6  | 6  | 2  | 19 | 146 |

## 2. 운영

### 가. 준비기간의 최단기화

출전자 모두가 같은 조건이라면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준비기간이 길수록 득(得)보다 실(失)이 많았다. 수업자와 지원팀 학급의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수업자와 대회 주관 실무자의 준비에 무리가 없는 10일 후 본선대회를 실시하였다.

### 나. 수업자 협의에 의한 교수·학습자료 총량제 도입

실제로 협의가 어렵고 제한범위가 모호한 부분이였다.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유야무야(有耶無耶)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담당 장학사가 교수·학습자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수업자들이 협의를 통해 자료의 범위와 수를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였다.

### 다. 본선 대회용 교수·학습자료 전람회

전람회장을 마련하여 본선 대회 수업에 활용된 모든 교수·학습 자료들을 진열하도록 하였다. 참관자 워크숍 활동이 끝난 후, 20분간 자유 관람 시간을 제공하였더니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고, 메모하는 교사들이 보였다. 그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 라. 수업 분석팀 운영

수업분석팀에 의한 객관적인 수업분석 자료를 심사에 활용하여 공정성과 신뢰감을 형성시켰다.

#### □ 종류 및 역할분담

- 수업분석 전문요원 : 수업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의 전 과정 분석
- 수업과정 촬영요원 : 대회 출전자들의 모든 수업을 촬영하고, 1등급 수상 수업을 편집하여 CD로 제작·배포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
- 학부모 모니터요원 : 대회 개최 학교를 포함한 인근 4개 학교의 학부모 12명으로 구성하여 과목별 2명씩 수업참관을 하게 한 후 홍보요원으로 활용

### 마. '수업 명사와 함께하는 수업기술 나누기' 워크숍

우리교육청 소속 수업명사들의 지원을 받아 본선대회 참관자들의 워크숍 활동으로 40분간 운영하였다. 수업명사들께 부탁하여 한 차시 수업의 도입부터 정리까지 자신들만의 수업기술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였다. 참관자들에게는 오늘 배워 내일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찾도록 하였다.

#### □ 활동내용 및 강사

- Good Instruction으로 행복한 교실 만들기(수업명사 : 차은숙)
- 교수·학습 단계별 수업 기술 나누기(수업명사 : 곽경희)
- 교육연극을 활용한 국어지도 방법(수업명사 : 천미영)
- 창작지도, 어렵지 않아요(수업명사 : 송예순)
- 슬기로운 생활 교과 수업사례 나누기(수업명사 : 강희순)

### 3. 성과

- 지원팀제 운영으로 실질적인 협조체제가 구성되고, 학습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자율 동료장학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 예선대회와 본선대회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였으며, 수업자와 지원팀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지도상황만 제시하여 학습지도안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학년의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및 수업설계 능력을 평가하였다.
  - 엄격한 심사위원 구성(연구사 및 관내·외 수업 관련 연구대회 다 경험자)과 관리로 공정성을 높였다.
  - 1일 전 수업학급 추첨으로 개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수업분석 요원의 프로그램 활용 수업분석 : 과학적인 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영어과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수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 수업의 일반화를 위해 수업의 전 과정을 촬영하여 CD로 제작하고 이는 수업장학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 '수업 명사와 함께하는 수업기술 나누기' 시간을 통해 수업 정보를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자료 총량제 도입으로 일반화하기에 알맞은 적정량의 자료만 제작하고 수업의 내실을 꾀하였다.
- 본선대회에 활용된 교수·학습자료 전람회 통해 좋은 자료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참관자에게 참관 교과를 정하도록 하여 '한 교과 집중 참관 문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교과학습지도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였다.

대회를 마치고 나니 업무 담당자로서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공문으로 참관자 워크숍 분과를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지만, 여전히 등록부에는 빈칸이 많았다. 선생님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교수·학습자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수업자들의 협의를 통해 자료의 범위와 수를 정하였지만 어떤 교과 수업은 과다한 자료를 투입하기도 하였다. 연구대회이다 보니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되었다.

과다한 자료 사용이나 보여주기식의 연출된 수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교사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지도 연구대회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학습지도 연구대회는 '교사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학습지도연구대회를 마치고



조 은 주

진주 금산초등학교 교사

### 1. 들어가면서

교사 경력 20년은 결코 적은 연륜은 아닐 것이다. 그 경력으로 선뜻 학습지도연구대회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용기와 배짱이 필요했다. 경력에 따른 책임감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이다. 초년 교사 시절 멋모르고 주위 선생님들의 권유로 수업 연구대회에 나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해 늘 언젠간 한 번 더 해 보리라는 집착이 해결 못한 숙제처럼 마음 한 구석에 자리매김하고 있던 터였다. 자신의 수업 기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고 검증해 보고도 싶었던 게 수업 연구 대회에 나올 수 있게 했던 원초적 힘이었다.

### 2. 준비하면서

예선대회는 지도안 쓰기 대회였다. 참가하기로 신청한 학년이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수학 과목이었다. 예선대회가 있는 5월의 진도에 맞춰 여러 자료를 뽑고 정리했다. 수학과에 해당되는 수업 모형 이론자료, 여러 수업 예시안 등……. 그런 다음 나름대로 지도안 쓰기 대회 전략을 세웠다.

- 다양한 학습 모형 적용하여 교과와 단원의 특성에 맞는 수업안의 모양새 구상
- 수업모형이 정해지고 나면 그 모형의 특징을 살려 수업안의 틀 잡기(단계나 흐름 등을 유의해서)
- 본시 40분 수업의 전체적인 활동을 그림 보듯이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 학생주도적 활동이 돋보이는 표현 - 재미있고 색다른 창의적 활동 표현
- 효율적인 판서 계획 표현과 다양한 수준별 과제 제시 빠뜨리지 않기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연습에 몰입했다. 교수·학습 모형 정하기, 수업 흐름 단계 정하기, 동기유발 자

료 정하기, 수준별 학습 활동 내용 정하기 등등. 예선대회 당일, 지도안 쓰기 대회의 차시는 6단원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 중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하는 내용이었다. 평소 연습한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A4 용지 5장까지 짝 채우고 나니 뭔가 최선을 다해 해냈다는 희열이 스스로를 벅차게 만들었다. 그렇게 무난히 예선을 합격하고 본선 대회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적 여유 밖에 없었다. 물론 본선 대회의 차시도 예선 대회 차시와 같았지만 실질적 수업안을 짜는데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다시 수업 연구 대회 본선 대회 전략을 세웠다.

- 체계적이고 본시의 특징을 잘 살린 지도안
- 본 차시의 수업에 맞는 원리탐구학습모형 전개 -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과 구체적 조작활동을 통해 원리를 유추해내는 귀납법적 학습 전개
-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동기유발 자료 제시 (동영상이나 웹 자료 보다는 구체물쪽으로)
- 놀이활동을 통한 수준별 학습 활동 전개
- 정선되고 돋보이는 학습 자료 제작하기(자료 총량제 범위)

이런 구체적 전략 아래 동학년 체제 중심으로 본선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본선 대회까지 강행군이 시작되었다. 준비의 기본은 먼저 지도안이었다. 먼저 초안한 지도안으로 사전 모의 수업을 하고 협의회를 통해 흐름을 수정하고 기본틀을 마무리지었다. 바쁜신 와중에도 짬을 내 수업을 보시고는 한마디씩 조언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보탬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매일 한 시간씩 모의 수업을 통해 시랑 맞추기, 학습 흐름 파악하기, 군더더기 제거하기, 교사 용어 선정하기, 아동 활동 파악하기 활동이 반복되었다.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이 교사와 아동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일 것이다. 본선 대회 이전의 두 번 만남을 통해 반 아이들과 충분한 교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 다음 자료 제작 토요일휴업일이 있는 주말을 이용해 이틀간의 휴일을 학교에 나와서 자료 제작에 매달렸다.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어린 협조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자료 총량제를 염두에 두고 정갈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산뜻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모둠활동을 통한 접판놀이〉



〈스텝북을 활용한 수준별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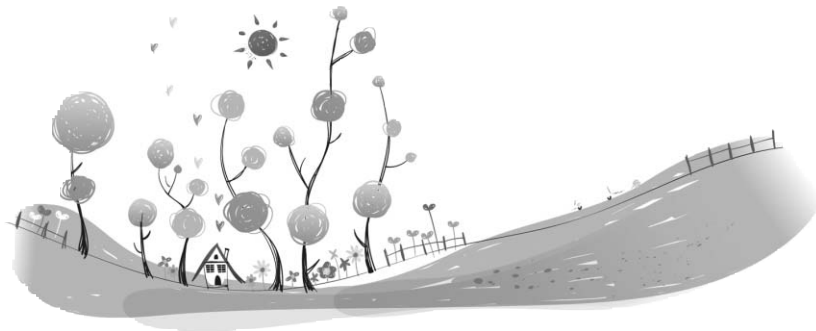


〈구체물을 이용한 학습정리〉

### 3. 보람된 열매를 맺으며

드디어 본선 대회날이 왔다. 40분 수업을 위해 숨차게 달려왔던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학습을 이끌어나갔다. 역할극을 통한 낚시놀이의 동기유발 자료로 공부할 문제에 접근했고 단계마다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거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스텝북을 이용한 수준별 학습 활동 단계에서도 아이들이 문제를 놀이처럼 해결해 나갔다. 수업이 끝나자 참관하신 몇 분 선생님들께서 자료가 좋다고 샘플을 얻어가신 분도 계셨다.

그렇게 수업을 끝내고 1등급이라는 영광을 얻었다. 학습 지도 연구대회는 다른 대회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수업자 자신의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팀웍 체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똑같은 수업 차시를 두고 개개인의 수업자가 어떠한 방법과 기술로 수업을 전개해서 효과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엔 아이디어 싸움인 것이다. 그 준비 과정은 수업자를 비롯한 주변 선생님들의 피나는 노고와 비례한다. 지도안을 구상하고 체제를 만들어내며 수업에 투입될 여러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내 일처럼 고민하고, 배달시킨 자장면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께 1등급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 결과는 학교의 단결된 힘이고 팀웍체제의 협동성인 것이다. 이 기회로 나 자신이 한층 더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수업 정진에 더욱 힘쓰리라 다짐한다. 교사 스스로가 발전하고 자기 연찬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교육의 미래는 조금 더 밝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배움이 있는 교실 속 수업 만들기

## (학습지도연구대회를 지원하면서)



박 이 영  
창원 자여초등학교 교사

「1등급, 자여초등학교 홍○○,」

긴장된 순간의 결과 발표보다 더 짜릿한 쾌감은 대회 4차시 수업마감종이 올렸을 때였다. ‘아! 해냈구나!’ 온 몸에 차오르는 희열감과 함께 수업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과보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 것이다.

연구대회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학습지도 연구대회가 참신하고 우수한 수업기술과 전략을 발굴하여 일반화시키려는 본래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일반수업에서는 도저히 실용화될 수 없는 일회성 자료, 자료 제작의 비현실성, 그리고 각본대로 짜여진 수업에 대한 회의 등의 역기능으로 그 목적이 다소 퇴색되는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몸살은 우리 교사들이 수업의 질 향상에 대해 나름 고민도 해보고 함께 동참하면서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도 꼭 하여야 할 당위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후배교사가 연구대회 참가를 망설일 때 우리는 기꺼이 동료의 도전을 격려해주었다.

### 1. 첫걸음-수업지도안 쓰기

수업연구대회의 예선인 수업지도안 쓰기에 대한 참가자 및 학교 전체의 준비는 철저했다. 전 교사를 대상으로 지도안쓰기 연수를 실시하였고 예선참가자들은 학습지도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료교사와 멘토-멘티가 되어 지도안 작성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였다.

연구에 대한 열기로 충만한 본교의 분위기 때문인지 6개 과목 중 4명 본선 진출, 1명 후보 입선이라는 전례에 없는 성과로 수업자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전체가 사기충천하여 기쁨으로 술렁였다.



지원팀 분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도 없지는 않았으나 진정한 수업연구는 등급보다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실력이라 서로를 격려하며 본 수업연구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 2. 수업을 디자인하다

### 가. 수업에 대한 원칙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의 정립이 먼저 필요했다.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생각의 시작       | 생각의 끝   |
|--------------|---|
| 학년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위주의 심체적 활동으로 재구성 할 필요성이 있다 - 학습모형 적용, 친근한 소재 선택</li> </ul>  |
| 배움의 주체 (아이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한명 한명이지 모두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li> <li>- 전체학습 및 모둠학습을 할 때에도 각각의 반응에 민감하라.</li> <li>-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수준별 학습)</li> </ul> |
| 자료 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적게, 적합하게-일반화 될 수 있는 정선된 자료 제작</li> </ul>   |
| 학력 신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와 내용을 각기 다른 색깔로 반복적으로 만나게 하자.</li> <li>- 집단 사고를 통한 기본 개념의 명확한 인지, 기초탐구능력 신장</li> </ul>   |
| 지원팀의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로 수업자의 손과 발이 되자.</li> <li>- 아이디어 구상, 자료의 제작, 시연 등 전 과정에 참여, 역할배분</li> </ul>  |

### 나. 수업 지원기

어떤 학습 모형을 적용하고, 목표도달을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첫 단추인 동기유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등의 난상토론은 그야말로 고난의 과정이었다. 수업이 단원의 첫 차시인 만큼 개념을 확실히 정립시키지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아동수준에 맞는 구체물을 활용한 놀이 활동을 통해 이해를 돕기로 하였다.

자료 제작은 학습목표 도달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자료로 일회성 자료를 탈피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누구든 만들기 쉽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선된 자료의 구안, 제작을 위해 지원팀 모두는 똘똘 뭉친 개미 군단이 되어 아이디어를 결집시켜 나갔다.

수업자는 시연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언어구사 및 자연스런 억양과 발문기술 등 수업기술을 다듬고 또 다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학습 지원의 열기로 학교는 불야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밤늦도록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시간들도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 3. D-day의 감동

대회당일, 격론 끝에 만들어진 동기유발부터 아이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시작하여 활동의 전 과정이 무리없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시선을 고루 분산시키기, 교사의 밝은 표정 관리며 엉뚱한 대답에 대한 순간의 대처까지 여러 수업전략이 잘 적중된 보람된 순간이었다. 긴장된 40분 수업이 끝났을 때, 나름의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번져가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수업을 준비하는 때 과정이 우리에게겐 배움이고 연수가 되는 알찬 시간이었기에 여기에 더하여 좋은 결실까지 맺게 되니 더욱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보여주는 수업이기 앞서 교실 속 살아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는 수업자와 지원팀의 바람은 준비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고 서로를 믿어주고 의지하는 화합의 기회까지 제공하였다. 수업에 대한 자신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려는 자기계발 의욕, 전문성 신장 등 학습지도연구대회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많은 후배 교사들도 이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련을 겪으며 성장통을 앓아보길 바래 본다.



# 교사가 준비한 만큼 학생들은 즐겁다!



양 상 수  
함양 마천중학교 교사

## 1. 시작하며

공개수업과 나의 첫 인연은 10여년 전 모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장학지도로 인해 시작되었다. 당시 3학년 수업을 전담하고 있었기에 1·2학년 담당선생님 중에서 공개수업을 할 것이라고 내심 안심하고 있었는데, 불똥(!)이 나에게 떨어졌다. 공개수업을 모두 꺼려하던 상황이라 은사이신 교감선생님께서 제자인 나를 지목한 것이었다. 부담스럽고 억울한 느낌도 들었지만 은사 명령(!)에 수업하던 반도 아닌 2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 이 공개수업을 계기로 공개수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고, 이후로 공개수업을 피하지 않고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던 선배교사의 격려에 힘을 얻어 수업연구대회에 세 번이나 용기를 내어 참가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평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학습목표가 진술되고, 때로는 단원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가르칠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그동안 수업연구대회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경험은 나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시켜 수업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 2.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수업연구대회의 수업 단원을 받은 후 교재 분석 ⇒ 학습목표 진술 ⇒ 수업모형 선택 ⇒ 동기유발 전략 ⇒ 발문계획 ⇒ 자료 활용 계획 ⇒ 평가계획 순으로 수업설계를 하였다.

먼저 단원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후, 7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 맞추어 학습요소를 추출한

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단원은 재구성하였다.

학습목표는 학습내용의 성취수준이나 지향하는 행동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하되, 학습 후에 나타나는 학습 결과로 진술하고, 관찰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다.

수업모형 선택은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인 협동학습을 선택하게 되었다. 협동학습은 같은 학습 주제를 가지고 팀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므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 정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기에 자기 생각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혼자서는 하기 힘든 것을 이루어내기가 쉬운 모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수업의 성패는 흔히 동기유발이라고 한다.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수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그리고 성취도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학습주제가 무엇인지 방향을 알려주는 동기 유발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분야였다.

발문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들이 교수활동 중 많이 사용하는 교수 기술의 하나이다. 학습자의 능력에 적합한 발문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발문에 사용하는 어휘나 구문은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선택하고, 한 발문에 하나의 요점을 묻는 발문을 준비하였다. 또한 교과 내용의 논리적 계열 순서에 따라 발문하고자 준비하였으며, 학생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발문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활용은 역사 이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 효과적이며 역사적 상상을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돕는데 유용한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사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사료는 학생 수준에 맞게 재편집하였으며, 단원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해 보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불평등조항을 평등조항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댓글(네티즌 의견)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과제도 준비 하였다.

평가계획은 학습목표의 도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되, 정보의 수집과 활용·탐구·의사 결정 기능 등의 측정에 역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의외의 답변을 수용할 준비를 하였으며, 시간의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지도 계획을 세워 수업에 임하였다. 그리고 수업할 때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교과서 내용을 전부 가르치려는 욕심보다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강조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는데 역점을 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 3. 맺으며

교실수업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만족하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모든 교사들의 관심사일 것이다.

수업연구대회가 내년부터는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풍문을 듣게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업연구대회가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회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교사의 생명이 수업이라고 볼 때,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열리는 수업연구대회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수업연구대회 성과물이 현장에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최시기, 단원, 학년 등을 달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번 수업연구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고민했던 많은 시간들이 결코 후회되지 않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서로 호흡을 맞추고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학생들은 즐겁게 수업을 하며 만족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전/문/가/초/대/석



김 현 규  
법무법인 서 경 변호사

# 학교 수업 중 응급환자 발생 시 학교의 조치의무



## 1. 머리말

이번 호에서는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위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한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학교 측의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학생과 가족들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경상남도(교육청)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3. 사고 발생 경위

부산고등법원의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고 발생 경위인 즉,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A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B가 2003년 10월 29일 있었던 7교시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사인

C의 지도 아래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10회 내지 15회 가량 하다가 16시25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당시 B는 동공이 풀린 채로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C는 학생들을 시켜 B를 반듯이 눕히게 하였으나, 1, 2분 가량이 지나도 상태에 변화가 없자, B의 얼굴을 두드려 본 뒤 학생들을 시켜 팔다리를 수 분 동안 주무르게 하였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자 B를 양호실로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 위 과정에서 B의 호흡 여부를 확인하여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이 없이 적어도 5분 가량이 지체된 사실, 양호실에 도착한 B는 양호교사에 의해 5,6분 정도 걸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로써 B가 쓰러진 때로부터 위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14,15분 가량이 소요된 사실, B는 병원에 도착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뒤 같은 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습니다.(그와 달리 B가 쓰러지자 C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양호교사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4.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통상 심박정지 후 5분이 경과하면 뇌신경세포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위 사건에서 체육교사로서는 즉시 B의 호흡 여부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B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급성 심장정지를 일으킨 B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상고로 대법원은, 학교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체육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와 같은 위급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체육교사로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한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그 학생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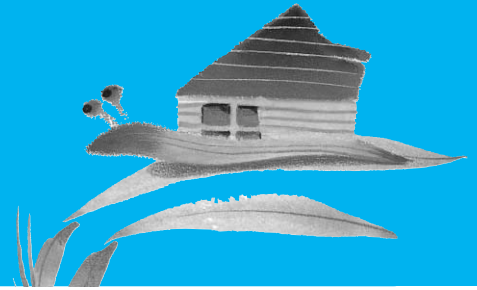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이 재 경

밀양 단산초등학교 교사 / 상담학 박사

## 교원의 정신건강(7)



교직사회에서의 대인관계는 자신과 타교직원간의 의미있는 교류과정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대인관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더불어 자신을 타인에게 나타냄으로써 대인관계의 질과 내용이 구성되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상대적 존재이다. 내가 어느 교직사회의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역할과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인간은 다원적 변화의 존재다. 지금 나의 모습은 절대불변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교직사회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자기노출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기노출은 교직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입장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잘 보여주므로 타인이 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노출의 과정없이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대인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교직사회에서 타인에게 나를 보여주는 과정인 자기노출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에 두렵고 고민스러우며 많은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힘든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인이 나를 알지 못하고는 관계를 깊고 의미있게 형성하고자 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나에게 주지 않으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노출을 통해서 의미있는 교직사회에서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내 모습은 교직의 사회적 역할 수행차원에서 형성된 내 모습일 경우가 많다.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교직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꾸며진 내 모습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리는 교직을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여주기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소망적 가치의 자기 모습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내 참 모습인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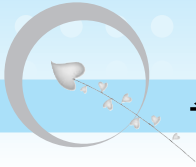


럼 느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나는 없어지고 가면을 쓴 내가 존재하게 된다. 가면을 쓴 모습에 반감을 가지게 되어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나의 비밀까지도 들어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인간을 그리워할 때가 있다.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해서 이대로 가면을 쓴 모습으로 교직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 때, 진실한 이야기를 아무런 판단과 비평없이 들어 줄 사람을 찾게 된다. 자신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정의 표현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고민, 갈등, 열등의식 등을 신뢰할 수 있는 타인에게 털어놓고자 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행복한 경험이며 정신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폭제 작용을 하게 된다. 내 마음을 전하므로 나의 정체감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이해가 가능해지게 된다.

인간적 존재로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노출이 가능한 것이다. 자기노출이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교직사회의 환경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진실되고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잘 알고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믿고, 경험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타인과 교류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내가 타인에게 자기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느낌, 생각, 감정, 가치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진실된 자기노출을 통해서 타인의 의미있는 욕구와 의지를 알 수 있고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노출의 함리적이고 적절한 기능은 한 인간으로서 교직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측면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직사회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기노출을 통한 다양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한다. 내가 타인에게 나에게 대한 참되고 의미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 해 줄 수 없다. 제시되는 내용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나의 생각, 감정, 느낌, 경험, 행동을 제시하지 못하면 나에게 대해서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경계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만남을 통한 자기노출이 힘들게 되는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온전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는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자기노출은 더욱 관계를 깊이 있게 해준다. 상황과 대상에 적합한 수준을 고려하여 자기노출의 수준을 깊이 판단해야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구 사회에서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노출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필요한 대인관계의 본질적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 사회 가치에 의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기노출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자기노출은 나의 상황, 타인의 상황, 나-타인의 상황적 상호작용, 교직사회의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내용과 수준이 탄력적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yjvision@hanmail.net



## 아이들이 즐거운 음악시간 만들기



문 중 녀

김해 삼성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은 도구교과 시간 보다 예체능교과 시간을 좋아하는 편이다. 3학년 음악 전답을 맡으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모든 아이들을 음악가로 만드는 수업이 아니라, 음악 시간이 재미있고 아이들이 음악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 ◆ 여는 노래로 즐겁게 시작하기

도는 튼튼한 무릎/ 레는 살찐 허벅지/ 미는 예쁜 엉덩이/ 파는 날씬한 허리/ 솔은 따뜻한 가슴/  
라는 튼튼한 어깨/ 시는 똑똑한 머리/ 즐거운 음악시간 도(두 손 위로 번쩍)

- 위의 노랫말을 ‘도레미송’ 음악에 맞추어 노랫말에 해당되는 율동을 하며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두 번 부르기
  - 처음에는 반주음악에 맞추어 율동하며 노래만 부르기
  - 다음에는 노래를 부르다가 계이름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빨리 일어섰다 앉기 이때 혼자만 일어 서게 되면 ‘오늘의 행운이’ 로 칭하고 보상
- ☞ 활기차고 즐거운 수업분위기 조성, 주의집중, 발성연습이 동시에 딱딱 해결!

### ◆ 학습판 제작활용으로 재미있게 창작활동하기

#### ▶ 3학년 1학기/ 자장가 및 매롱이 소리 / 2차시/ 미, 라, 도 3음으로 가락짓기

- 자석이 붙을 수 있는 학습판 제작
  - 가로 60cm X 세로 20cm 크기의 철판 준비
  - 양면에 안정된 색깔의 시트지 붙이기
  - 철판의 가장자리를 부드러운 부직포로 둘러 붙이기
  - 3선 악보를 그린 후 미, 라, 도 3음 표시(학습판 완성)
- 가사자료 제작
  - 창작 부분의 가사를 코팅한 후 음길이표에 맞게 자르기
  - 코팅한 가사 뒷면에 꼬마자석 붙이기

- 모둠 또는 짝 활동의 수단كم 아동에게 배부하기(가사 자료 완성)

• 학습활동

- 활동판을 실로폰 받침대에 세워두고 가사자료를 3선보 위에서 조작하기

- 조작한 가락을 실로폰으로 쳐 가며 마음에 드는 가락이 완성될 때까지 수정하여 완성한 후 발표하기

▶ 3학년 1학기/ 시계/ 1차시/ 4박자의 리듬꼴 창작하기

• 위에서 제작한 학습판의 뒷면 활용

- 학습판에 4박자 두 마디를 창작할 수 있도록 가로 8칸, 세로 2줄의 네모칸 만들기  
(윗줄에는 알맞은 리듬의 음표 넣을 부분이고 아래 줄에는 시계소리 적을 부분)

• 리듬자료 제작

- 교과서에 제시된 리듬 세 가지를 넉넉히 복사하여 코팅 한 후 자르기

- 코팅한 리듬카드 뒷면에 꼬마 자석 붙이기

- 모둠 또는 짝 활동의 수단كم 아동에게 배부하기(리듬자료 완성)

• 학습활동

- 학습판 윗줄에 자석으로 제작된 리듬창작 자료를 마음대로 조작하기

- 학습판 아랫줄에 보드용 펜을 이용하여 리듬에 알맞은 시계소리 써 넣기

- 마음에 드는 리듬이 완성될 때 수정하여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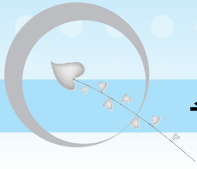
☞ 음표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 싸악~, 연필로 쓰고 지우는 불편함도 싸악~, 주어진 시간에 많은 리듬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창작능력이 저절로 쑥쑥~.



〈매롱이소리/3음으로 가락짓기〉



〈시계/ 4박자 리듬꼴 창작하기〉



## 변조는 창의력이다



류 재 홍

진해 제일고등학교 수석교사

지난 4월 18일, 고성중앙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중등 학습지도 연구대회 심사위원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포된 국어과 세 분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과정안이 나를 불만스럽게 했다.

그 이유는 학습목표 진술이나 단원설정의 이유를 밝히는 부분에서나, 본시 학습과정안의 어떤 항목과 내용에 있어서도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수업의 진행에서도 교사의 언급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본시학습의 단원이 '봄봄'이라는 문학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이해'에만 치중할 뿐, 창의력 신장 부분은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목표와 국어과 교육목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창의성 교육'이다. 때문에 국어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문이며 중핵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물론 국어과의 문학뿐 아니라 음악·미술과 같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예술영역의 학습지도를 통해 발산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정돈시켜 쓰기·말하기·듣기·읽기의 언어 영역 전 과정을 수반하는 문학 교과 수업이야말로 창의적 사고력 배양에 가장 효율적인 교과임에 틀림없다.

흔히 문학작품을 발달된 생물의 유기체에 비유한다. 복합적 구조물으로써 한 편의 완성된 소설 작품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때문에 원작 속의 인물과 사건, 배경과 시점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침식되거나 바뀌어져 변조되면 즐거리와 주제가 전혀 다른 작품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소설의 결말을 연장하는 방법도 새로운 즐거리 창조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지면 관계상 필자는 앞서 언급한 소설 작품 '봄봄'에 한정하여 '즐거리 만들기'의 실례를 구성요소를 적절히 변조시키는 학습활동을 통해 제시해 본다.

첫째, '나'와 '점순'의 성격을 역전시킨다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장인'의 성격을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의리 있는 인물로 바꾼다면 '점순'과 주인공 '나'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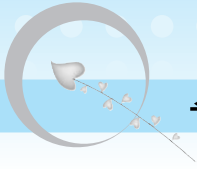
것인가? 또한 '나'가 독립 운동가이며 지식인으로 일본 경찰에 쫓기거나 은신하는 처지가 되어 '점순'의 집을 잠시의 피신처로 생각한다면 예비 '장인'의 횡포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점순' 아버지의 존재를 아예 빼 버리고 동정적이고 순박한 흠어머니와 살고 있었다면 '점순'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주인공 '나'와 비슷한 나이와 처지에 있는 총각 머슴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주인공 '나'가 탈북자 혹은 조선족이라면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둘째, 사건도 변조가 가능하다. '점순'의 아버지를 고리채를 뜯는 악덕 지주로 설정하고 그 횡포에 한을 품은 '나'가 암암리에 살인을 노리는 사건으로 변형시킬 수는 없을까? 예비 '장인'의 횡포와 심술에 저항하다 주인공 '나'가 중상을 입는다면 '점순'과의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셋째, 시간적 배경을 조선시대나 2000년대로 바꾼다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공간적 배경을 도시로 설정한다면 등장인물과 사건은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학생들에게 변조할 수 있는 소설의 구성 요소를, 상기한 예문을 통해 미리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스스로 장안해 낸 변조 내용으로 인과관계를 갖춘 '줄거리'를 쓰게 한다. 구성요소를 변조하여 줄거리를 만드는 쓰기와 표현하기, 그 내용을 발표하는 말하기와 이를 함께 듣고, 급우들의 창작물을 서로 돌려 읽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국어과 학습지도의 전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물론 비판적 사고와 추리력, 논리적 사고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청소년기의 예민한 감수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고무·신장시켜 창의성 있는 인간으로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오늘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 막중한 책임은 우리 교사에게 있다. 틀에 박힌 교실 수업의 개선 없이는 창의력 향상은 불가능하다. 교사는 교사용 지도서의 시간 배정과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과제를 통해 미리 줄거리를 쓰게 한 다음이라면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 협동학습 실천을 위한 '협동적 학급운영'

이 소 영

진해 석동초등학교 교사

협동적 학급 운영은 다양한 협동학습의 구조의 활용을 통해 같은 반 학생들 사이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집단의 시너지 효과를냄으로써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창조해내는 활동들이다. 이러한 협동적 학급 운영은 협동학습의 4가지 기본원리인 긍정적인 상호의존, 개인적인 책임,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된다.

### 1. 침묵신호와 시간신호 사용

침묵 신호는 학생들을 집중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일종의 약속으로 학생들이 말하던 것을 멈추고 교사를 주목하게 하는 신호이다. 이를테면, 교사가 조용히 한 손을 높이 들면 아이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선생님을 따라 한 손을 높이 들고, 다른 한 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침묵하면서 선생님께 집중하는 신호이다. 학생들에게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시범을 보인 후 여러 번 반복하여 익숙하게 한다. 시간신호는 모둠별로 과제를 수행할 때, 남아 있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타이머를 활용하여 남은 시간을 설정하여 신호를 보내고,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을 스스로 확인하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 2. 학급 규칙 만들기

학기 초 학급 안에서 꼭 지켜야 할 일을 혼자 생각한 후 모둠 토론 거쳐 제안할 내용을 2가지씩 정하게 한다. 모둠 중 한명이 나와 칠판에 적는 동시에 반 전체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칠판나누기로 구조를 적용하여 나온 다양한 의견을 소개법으로 학급 실정에 맞게 적절한 수로 묶어 학급 규칙을 정한다. 또한 칭찬과 벌칙 방법도 같은 방법으로 정해 학급 게시판에 고정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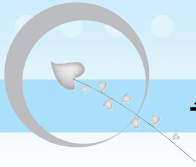
### 3. 과제 제시와 보상제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협동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제와 보상이 필요하다. 과제 제시는 학습 과제를 분담하여 부과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협동하지 않으면 학습과제를 이행할 수 없도록 구조화된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제시할 때는 한 번에 지시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양을 말과 글을 이용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시범보이기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한 목소리로 답하기 또는 번호순으로 등의 구조를 이용하여 얼마나 이해했는지 점검하여 과제 수행의 효율화를 높인다. 보상의 방법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특히, 학급 온도계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은 보상 방법으로 학급 향상점수에 대한 목표를 학생들과 함께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온도계에 표시하고 일정한 온도에 다다르면 그에 따른 학급 전체에 보상을 주는 것이다.

### 4. 동시다발적인 학급 운영

협동적 학급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학급을 운영해야 한다. 학습 자료나누기 상황에서 이를 설명하면 순차적인 운영은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한 번에 하나씩 배부하여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나 동시다발적인 운영은 나누기가 각 모듈에서 나와 자료 센터에 가서 모듈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가 자료가 신속히 배부되고 학생들도 능동적으로 학급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자율적인 운영이 중요한 협동학습에서 협동적 학급 운영 기술은 통제나 조작을 의미해 협동학습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학급 운영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돕고 모듈활동의 과정과 학급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다듬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즉 학급 운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협동적 학급 운영의 기술은 학습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적절한 학급 운영 기술은 훌륭한 처방전처럼 궁극적으로 운영 기술 자체의 필요성을 일소시켜 학생들 스스로 학습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책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에서 내적인 보상을 찾아낼 수 있게 해 준다. 구조화된 협동적 학급 운영은 서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만들어내고, 서로 만나서 활동하는 협동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술 지도(2)



임 경 미  
양산 중부초등학교 교사

### 학습기술 지도 프로그램(예시)

학습기술검사 결과에 따른 처치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학습기술 하위요소에 따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만 제시하고자 한다.

#### 1. 자기조절 학습기술

자기조절 학습기술은 필요한 학습 자료와 학습 공간의 조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관리, 학습에 필요한 도움 구하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기술들 속에는 학습자들이 수업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학습행동을 점검하거나 보상하며 지시하는 일련의 행동도 포함된다.

##### 가. 학습자료 및 학습공간의 조직

이 학습기술은 학습자의 외부환경이나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다음은 점점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예시이다.

〈자료와 공간의 조직화 체크리스트〉

| 번호 | 내 용   | 예/아니오 |
|----|---|-------|
| 1  | 나는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 사전을 가지고 있다.       |       |
| 2  | 나는 공부를 시작할 때 필기도구를 잘 갖추어 놓고 시작한다.             |       |
| 3  | 나는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       |
| 4  | 나는 공부하기 전에 책상, 서랍, 방안 등 주위를 잘 정리정돈 한 후에 시작한다. |       |
| 5  | 나는 공부할 때 필요한 학습 자료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       |
| 6  | 나는 학교나 집 주변이 시끄러워서 공부하기가 힘들다.                 |       |
| 7  | 나는 학습지를 모을 수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다.                   |       |
| 8  | 나는 선생님이 검사하고 돌려준 과제물을 반드시 파일에 모은다.            |       |
| 9  | 학습지는 파일에 과목별로 잘 구분하여 모아둔다.                    |       |
| 10 | 집에서 공부할 때는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지 않는다.               |       |



## 나. 시간의 관리

이 학습기술은 학습자의 수업시간이나 수업이외 시간의 계획과 관리에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시간 사용 실태평가 후 일간, 주간, 월간 시간계획을 세워 실천한 후 시간 사용 반성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시간 사용 실태 점검표〉

| 내 용                       |  | 사용시간 |
|---------------------------|--|------|
| 수면                        |  |      |
| 식사                        |  |      |
| 등하교                       |  |      |
| 심부름                       |  |      |
| 학교에서 보낸 시간                |  |      |
|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한 시간           |  |      |
| 부모님과 보낸 시간                |  |      |
| 그 외의 일에 사용한 시간            |  |      |
| 계                         |  |      |
| 시간을 낭비한 행동                |  |      |
|                           |  |      |
|                           |  |      |
| 24시간 - ( ) = 낭비한 시간 ( )시간 |  |      |

〈주간 계획표 작성하기〉

| 주간 계획     | 요 일 |   |   |   |   |   |   |
|-----------|-----|---|---|---|---|---|---|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오전~ 수업 전  |     |   |   |   |   |   |   |
| 일과 중      |     |   |   |   |   |   |   |
| 방과 후~식사 전 |     |   |   |   |   |   |   |
| 저녁 식사 후   |     |   |   |   |   |   |   |

〈우선순위 점검표〉

| 과 제                  | 우선순위 | 이 유 |
|----------------------|------|-----|
| 숙제하기                 |      |     |
|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하기        |      |     |
| 방 청소하기               |      |     |
| 식사하기                 |      |     |
| 친구들 만나기              |      |     |
| 내일 칠 수학 시험공부하기       |      |     |
| 다음 주 제출할 과학 숙제 자료 찾기 |      |     |
| 집안 일 돕기              |      |     |

## 다. 스트레스의 관리

이것은 학습자의 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확보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학습기술이다. 다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처치방법을 소개한다.

- 1) 정신적 각성 :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게 학습시간 계획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당면한 학습 과제에 집중하기
- 2) 불안 조절 : 명상기법 활용, 점진적인 근육 이완
- 3) 적절한 신체적 상태 유지 : 충분한 운동하기, 충분한 영양섭취, 유해물질 피하기
- 4) 긍정적인 자아개념 : 정확한 자기평가, 학습에 대한 책임감, 긍정적인 사고

## 라. 적절한 도움 구하기

학습자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구하는데 관련된 학습기술이다.

학습자에게 도움의 자원을 찾는 방법을 안내(책, 친구, 교사, 특강, 인터넷 등)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자기관리기술에 대한 주간 점검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지도한다.

〈자기 관리기술 주간 평가표〉

| 이름 _____                                   | 기간 _____                 |
|--|--------------------------|
| 이번 주 나는                                    | √ 하기                     |
| •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를 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 • 일일 생활계획표를 실천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 • 공부할 때 라디오나 TV를 켜다.                       | <input type="checkbox"/> |
| • 숙제를 모두 다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 • 내 주변을 정리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 • 일이나 놀이를 할 때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겨 놓고 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 • 숙제를 다 한 후에 따로 공부할 시간을 두었다.               | <input type="checkbox"/> |
| •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거나 따로 책을 찾아보았다. | <input type="checkbox"/> |
|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 • 나의 건강 상태에 맞게 공부를 하였다.                    | <input type="checkbox"/> |
| • 잠을 충분히 잤다.                               | <input type="checkbox"/> |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용 방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장학사 강 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보호받는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이더라도 창작성을 갖춘 표현물이라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12월 28일 저작권법이 전부 개정, 2007년 6월 29일 저작권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전송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각급 학교에서 개정된 저작권법의 올바른 이해 및 적법한 시행을 통해 최소한의 저작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작성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전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 학교홈페이지 점검 등을 통하여 저작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 1.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의 이해

### 가.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

“초·중등학교는 수업목적상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의무화

“초·중등학교는 저작물을 이용(전송)할 경우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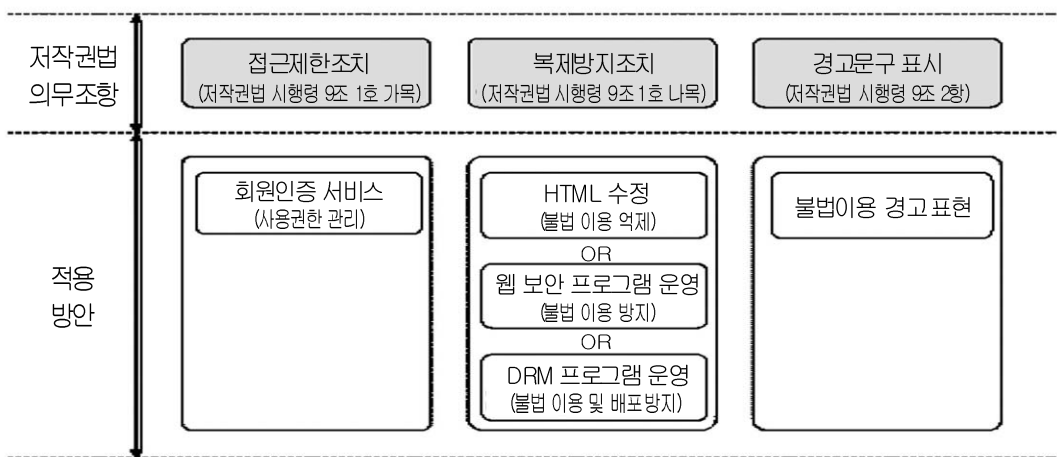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의 표시'를 말하며, 초·중등학교는 실제 운영 관리하는 인터넷환경(예: 학교홈페이지)에 위의 3가지의 조치를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신고 서비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학교의 이행 가이드

### 가. 저작물의 불법복제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의무조항에 따른 적용 방안

### 나. 초·중등학교의 저작권 신고 서비스

초·중등학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권리주장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접수 및 처리하는 '수령인'을 지정하고, 이를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 각 하단에 '저작권 신고' 서비스를 링크한다.

## 3. 작권법 FAQ

다음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이 되어지는 내용들이다.

- 가. 시험문제 : 입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그리고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교과서의 그림이나 글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 나. 학교 방송, 공연 :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어 준다든지, 축제기간에 강당에서 연극을 공연한다든지, 모두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다. 신문기사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 그것들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그대로 올려도 무방하나, 보도기사에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되면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 라. 학교에서 영상저작물을 재생 : 시중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공중에게 무료로 상영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된다.
- 마. 도서관 열람자의 가능한 복제의 범위 :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바. 좋은 학습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링크 : 그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초기화면으로 링크시킨다.

## 4. 이럴 땐 저작권 침해

다음은 학생들이 자칫 행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사항이다.

- 가.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기
- 나. P2P, 웹하드 등에서 영화, 음악 파일 주고 받기
- 다. 영화, 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기

IDP(개인개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 영어집중교육



함안 산인초등학교 교장 최 용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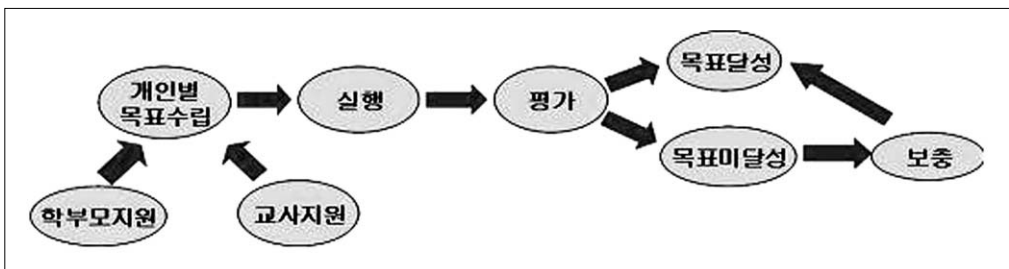
## 1. 시작하며

스웨덴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 가운데 영어를 가장 잘 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06년 조사한 모국어 외에 영어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 할 줄 아는 국민의 비율에서 스웨덴(88%)은 룩셈부르크(99%) 네델란드(91%)와 함께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발링스네스 초등학교 3학년 안톤(9)군은 올해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로 영어로 된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보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안톤 군이 이 같은 학습 목표를 정한 것은 스웨덴의 개인개발프로그램(IDP, Individual Development Program)에 따른 것이다.

산인초등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고 쓰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 수업으로 주당 1시간 혹은 2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산인초등학교가 농촌에 위치하여 사교육을 하고자 해도 마땅히 교육을 담당할 사교육기관도 적을 뿐더러 그 질도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것이 IDP(개인개발프로그램)이다

## 2. IDP란

학생이 스스로 성취목표를 정하면 교사는 학생의 성취목표를 관리하고 학교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산인초등학교의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은 IDP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상위 목표 1-3개와 하위의 세부목표를 영역별로 작성한다. 일단 학생들이 IDP를 세우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함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목표성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영어담당 교사와 수시로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상의한다.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계획한 목표를 이루도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부 방법을 찾아내 돕는 것이다.

### 3. 영어집중교육의 목표

듣기 능력 신장

회화 영어 습득

자신감 배양

사교육비 제로화

### 4. 영어집중교육의 내용

#### 가. 프로그램의 핵심

- 명확한 목표에 따른 자율적 영어교육
- 수준 높은 교사
-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집중교육
- 영어 노출 기회의 극대화

#### 나. 영어교육과정 시간 확대 운영

( )속은 주당 시수

| 구분 \ 학년       | 3학년 |     | 4학년 |     | 5학년 |     | 6학년 |     |
|---------------|-----|-----|-----|-----|-----|-----|-----|-----|
|               | 기준  | 확대  | 기준  | 확대  | 기준  | 확대  | 기준  | 확대  |
| 교재 중심 수업      | 34  | 76  | 34  | 76  | 68  | 114 | 68  | 114 |
| IDP 및 영어듣기 수업 | (1) | (2) | (1) | (2) | (2) | (3) | (2) | (3) |
|               |     |     |     |     |     |     |     |     |
|               |     |     |     |     |     |     |     |     |
| 계             | 34  | 152 | 34  | 152 | 68  | 190 | 68  | 190 |
|               | (1) | (4) | (1) | (4) | (2) | (5) | (2) | (5) |
| 확대 총 이수시간     | 684 |     |     |     |     |     |     |     |

#### 다. 수업시간 운영의 실제(예시)

한 차시 분량의 내용이 40분 동안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시량을 늘여서 지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본교에서 자체 개발한 IDP 프로그램에 따른 학습을 한다.

3·4학년의 경우 교육과정 상에는 1시간 학습할 분량을 본교에서는 2시간으로 늘여서 운영하고 나머지 2시간은 EBS e-English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unny Town ABC를 이용한 e-learning을 한다. 5·6학년은 2시간 학습할 분량을 3시간으로 늘여서 운영한다. 따라서 주 3시간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과 본교에서 자체 개발한 IDP 프로그램에 따른 학습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EBS e-English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alad English를 이용한 e-learning을 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영어듣기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확대된 수업시간 운영의 예는 다음과 같다.

3·4학년 수업내용 비교(주당 4시간으로 확대)

| 원래 수업내용   | 확대 시간 | 확대 수업 내용   |
|---|-------|--|
| ■ 1차시 ■<br>• Look and Listen(1)<br>• Listen and Repeat(1)<br>• Let' Play(1) | 1차시   | • Look and Listen(1)<br>• Listen and Repeat(1)<br>• Let' Play(1)<br>• IDP- 수준별 영어단어 워크북, 영어동요 부르기, 교실영어 학습 |
|   | 2차시   | • Let' Review<br>• Let's Play(1)<br>• IDP- 수준별 영어단어 워크북, 영어동요 부르기, 교실영어 학습                                 |
|   | 3차시   | • Let' Review<br>• EBS e-English의 Sunny Town ABC시청   |
|   | 4차시   | • Let' Review<br>• EBS e-English의 Sunny Town ABC시청   |

○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교육방송 활용

| 학기 \ 학년 | 3, 4학년                                   | 5, 6학년                               |
|---------|--|--------------------------------------|
| 1학기     | Sunny Town ABC Story Land                | La La La Happy School Salad English  |
| 2학기     | Alice's Wonder garden Boom Boom Musidand | This and That English I Love Reading |

라. Funny Story Time 운영

○ 수업시작 전 영어 학습실에서 아침 등교한 학생들이 스스로 와서 들을 수 있도록 영어 교육방송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함.

| 시간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8:00 - 9:00 | EBS 방송 Story Land(Ⅱ), 영어애니메이션 |   |   |   |   |   |
| 방송매체        | VOD, DVD                      |   |   |   |   |   |

5. IDP 작성의 실제

6학년 정민하는 영어실력이 상위에 속하는 학생으로 IDP 작성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여 정하였다. 상위목표 듣기영역은 '370개 필수 영어단어를 안다', 말하기 영역은 '영어동화책을 읽고 느낌을 5개 이상의 단어로 말할 수 있다', 읽기영역은 '영어동화책을 7권 이상 읽는다', 쓰기 영역은 '단어를 이용하여 영어로 일기를 쓸 수 있다'로 정하였다. 하위목표는 매 수업 시간 도달하는 학습목표 중에서 상위목표와 연결된 것을 중심으로 정하였다. 평가는 수업시간에 수시로 평가하여 누가 기록하고 학부모에게 IDP과일을 4월과 6월에 가정으로 보내 확인하도록 하여 학부모와 연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6. 성공 조건

- 가.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고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따라서 무리한 목표를 세우거나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자기수준에 맞도록 공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나. 고학년과 저학년을 묶어 혼합학습을 하면 효과적이다. 수업 중 모르는 것을 교사와 고학년에 물어 먼저 공부하게 된다.
- 다. 교사에게 자율권을 주어야하고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짧은 연극을 하거나 영어신문을 만들어 교환하거나 외국의 학생들과 편지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자주 활용해야 한다.

## “새미학습”에서 만나는 여름방학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박 상 섭

작렬하는 햇빛이 시원함을 쫓는 7월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의 여름방학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일선 선생님의 성적처리와 색깔 있는 방학계획 고민, 부모님들의 욕심과 근심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자녀학원 선택들이 각각의 일상을 채우기 바빠진다.

고성능 데스크 탑 컴퓨터를 산지 6개월도 못되어 무선 노트북조차 구식이 되어가는 사회변화와, 서지자료 중심 공부로는 따라잡기 힘든 학습자료의 다양화가 간단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름방학을 몽땅 가로채려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기 바쁘는데 쏟아지는 공부거리와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책들을 찾아 해결하느라 많은 비용과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새미학습’ 활용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방학을 이용한 온라인 보충 심화학습거리로, 교과서 밖의 공부로 많이 하고 있는 한자나 창의성,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 교과서 보충이나 속진도 학습의 영어/수학/체험 과학, 기타 프로젝트학습 등을 추천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앞서 단위학교나 학급에서 여름방학 계획 수립시 새미학습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학교마다의 새미학습 선생님을 활용하여 학년이나 학급 중심의 ‘여름방학 학급’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본원에서 서비스 예정인 ‘방학 특설 행복학급’을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학교나 동학년 단위로 새미학습의 새로운 사이버학급을 개설하여 특색 있는 여름방학을 경험할 것을 권장한다.

### ‘여름방학 학급’ 이런 학급은 어떨까?

#### □ 새미학습 이곳저곳을 누비는 방학 골든벨

방학 골든벨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새미학습 콘텐츠를 자율 학습 후 골든 벨 학급 게시판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학골든벨 학급을 생성하여 공지 사항, 골든벨 참여방법, (학년이나 과목 단위)OO골든벨, 질의응답 등의 기본 메뉴를 구성하고 학급메인을 장식한다. 그리고 수업(골든벨 유형)은 학교단위나 학급 단위나에 따라 다르게 생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년이나 학급 단위라면 수학 골든벨, 영



어 골든벨 등의 과목단위로 골든벨 수업을 생성하면 된다.

수학 골든벨이라는 수업이 생성 되었다면, 관련 수학콘텐츠들을 선택하여 주 단위로 탑재하여주고, 과제 방을 통하여 2~3문제 제시 후 댓글(비밀글로 설정되어 있음)로 답을 적게 한다. 그리고 정답 제시 만료 시점에 통과한 이들을 공개하여 사이버 골든벨을 운영하면 될 것이다.

추진하는 시기가 방학이니 만큼 동학년 단위나 이웃하는 학교간 몇 개교가 함께 한다면 운영의 부담이 덜고 그 효과도 배가 될 것이다. 한 가지 단순한 지식을 묻는 평가 문항보다는 제시한 콘텐츠들을 학습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벨 문항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자신의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새미학습 프로젝트

방학 과제들을 살펴보면 프로젝트학습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에 새미학습을 도입시켜 단 한 과목만이라도 자신의 부족한 과목을 자기주도적으로 보충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안내한 것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학이면 학원을 찾는 단골 과목인 영어, 수학관련 콘텐츠 외에도 지난 호에 소개했던 오카리나, 수채화, 요가 등의 예체능 콘텐츠 등의 프로젝트 학습은 방학을 더욱 살찌게 할 수 있다.

방학 전 개인 면담과 함께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세운 뒤, 관련 콘텐츠를 탐독하여 학습한 핵심내용을 노트정리하고 질문 내용을 찾아 해결한 과정을 기록하거나 화면 캡처하며, 학교 수업이나 기타 학습자료와 비교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식의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학습을 진행하여 결과물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에 취약하고 강한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는 내용을 보고서로 마무리 한다면 멋진 작품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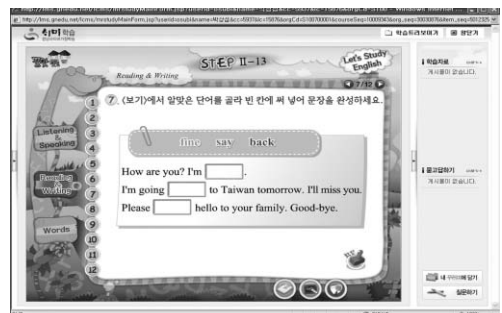
### □ 영어단어 급수제 콘텐츠를 통한 영어 단어왕

본 지 5월호에 잠시 언급했던 초, 중 공용 영어단어학습콘텐츠로 대상 학생의 여건에 맞는 급수를 학습하여 기초단어를 공부한 후 영어단어왕 선발 시험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켜준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영어단어 급수제 콘텐츠는 현행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초3(20급수)에서 고1(6급수)까지 필수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계형 영어평가 콘텐츠는 총 5단계 단계별 10차시 차시별 말하기/듣기 4문항, 읽기/쓰기 4문항, 어휘 4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이용 학생은 초, 중학생으로 문제풀이식 콘텐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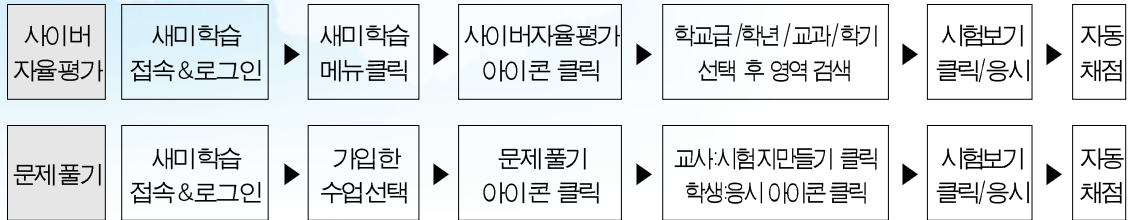
이외 방학중 집중하여 영어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새미학습 메인 하단의 '영어콘텐츠 홍보하급'에서 다양하게 맞볼 수 있다.



## □ 우리학교 실력 짱! 도전 e-방학 모의고사

새미학습의 사이버평가 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자율평가와 문제풀기라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다. 사이버자율평가는 랜덤(random)방식에 의해 추출되는 시험지를 학생 풀어보고 바로 채점하여 피드백하는 방식이며 교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문제풀기는 교사에 의해 출제되어진 문제를 학생이 풀어보고 바로 채점하여 피드백하는 방식이다.

각 기능별 이용 단계를 흐름도로 살펴보자.



여기서 우리 학교나 우리 반 학생들만의 e-방학 모의고사를 진행하려면 후자의 ‘문제풀기’ 방식을 응용하면 된다. 즉, e-방학 모의고사 학급을 개설한 뒤 수업을 ‘수학 e-방학 모의고사’, ‘국어 e-방학 모의고사’ 등으로 생성하고, 각 수업 별로 <문제풀기> 메뉴에서 방학 중 치를 e-방학 모의고사를 4~5회 출제하여 운영하면 된다. 운영시 주의할 점으로는 모의고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응시 후 오답 노트를 확인하여 틀린 부분에 대한 재학습 안내도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운영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여름에는 학교 또는 학급단위의 새미학습 활용 방학계획으로 우리 아이들의 알찬 방학 만들기 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새미학습 메인의 하단에 소개되고 있는 ‘방학 특설 행복학급’을 통하여 논술, 창의성, 한자, 응급처치, 중국어 및 일본어 회화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비스 중인 메인학습 하단의 수학, 영어, 예체능 콘텐츠도 많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그동안 부진 했던 과목 보충이나 심화학습으로 새미와 함께하는 멋진 방학을 기대하여 본다.





교장 정창호

## 특색교육활동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반올림하는 남해해성고등학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해성고등학교(교장 정창호)는 최근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몰려 '전국권' 학교로 주목받고 있다. 2007학년도는 36%, 2008학년도 현재 전교생 272명 중 66%가 서울, 광주 등 타 지역 학생들이다. 올 신입생 115명중 경남이 46명, 서울 10명, 부산·울산 13명, 강원·경기 10명, 광주 및 전남·북 14명, 충청 6명, 대구·경북 10명, 인천 4명, 제주 2명이다. 몇 해 전만 해도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 학교존폐의 위기까지 겪어야 했던 한 시골 고등학교가 이제는 역으로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가고 싶은 학교'가 됐다. 전국의 농어촌 학교의 일반적인 현상인, 지역 및 학교의 공동화로 학생이 없는 현실을 극복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소개하려 한다.

### 1. 꿈과 희망을 반올림하는 해성교육21

#### 가. 공교육 영어완성프로젝트 - Haesung Global Zone 운영

남해해성고등학교는 공교육영어완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08학년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Haesung Global Zone(영어전용교실운영: 교실 5개, 영어세미나실 1개)'은 영어교사 5명(원어민1명, 영어 [원어민교사와 만남 : 학교인근 힐튼리조트에서] 영어 전용교사 1명, 본교 영어교사 3명)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낯설음을 친숙함으로 바꾸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영어교사 5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Haesung Global Zone'은 농어



〈원어민교사와 만남 : 학교인근 힐튼리조트에서〉

촌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과의 만날 기회가 적은 본교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 활용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단계부터 5단계로 학년별, 수준별로 나눠 학생수준에 맞추어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방식이다.

〈반 편성 및 세부현황〉

| 장소(영어전용교실)    | 인원  |     | 교사-학생<br>(영어사용률) | 담당교사   |
|---------------|-----|-----|------------------|--------|
|               | 1학년 | 2학년 |                  |        |
| Global Zone 1 | 8   | 6   | 100%             | 원어민교사  |
| Global Zone 2 | 12  | 8   | 100%             | 영어전용교사 |
| Global Zone 3 | 21  | 14  | 100%             | 본교교사   |
| Global Zone 4 | 21  | 14  | 80%              | 본교교사   |
| Global Zone 5 | 24  | 15  | 60%              | 본교교사   |

●골프반(1년 1개반, 2년 2개반)은 Haesung Global Zone 편성 운영하지 않음

#### 나. 남해서 제2의 민사고 꿈이 영근다.

전국의 인재들이 모여 한국·세계 최고를 꿈꾸는 본교는 공 교육 내실화로 맞춤형 수준별 야간 무료 특강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학원과 과외가 필요 없는 무공해 학교다. 특히, 기숙중심 학교로 학생들의 주말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사학위의 외부강사를 초청, 주말 방과후학교 교육으로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본교 이종명 이사장(에머슨퍼시픽그룹 회장)이 매일 매일 덕을 쌓는다는 의미로 자신의 아호 ‘덕일(德日)’을 따서 만든 ‘덕일드림학사(교실 8실, 기숙사 57실)’에서 학생들은 24시간 머문다.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지하는 전기 및 기계실로, 1층은 교실, 2, 3, 4층은 기숙사(4인 1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의 교류는 남해해성고를 ‘제2의 민사고’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민사고와 교사 교류, 학생 위탁 교육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학생·교사 교류는 실정에 맞게 ‘2+1’ 학년제로 학생은 1년은 본교에서 2년은 민사고에서 배우며 교사는 방학 때 필요한 부분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이돈희 전(前) 민사고교장 강연〉



〈덕일드림학사전경〉

## 다. 가슴으로 낳은 사랑 - 느티나무 멘토링 운영



〈멘토링 활동 모습 - EBS방영〉

남해해성고등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제도(매월 3째주 금요일 Mentoring Day 지정 운영)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교는 학생 대부분이 교사와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있다. 교사 한명이 3명에서 7명까지 학생들을 담당하며, 언니와 삼촌과 같은 제 2의 가족역할을 해주고 있다. 멘토(Mentor:후견인)-멘티(Mentee: 멘토로부터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사람)관계로 교직원 40명이 학생 272명 중 특기생을 제외한 전교생과 3~7명씩 멘토-멘티가 돼 제2의 가족역할을 한다.

학생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멘토인 교사들은 수시로 학생들을 만나 학교생활과 진로, 교우관계 등 고민상담은 물론,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학습도우미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식 위주가 아닌, 청소년기에 부모님에게 못하는 자기만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모임도 된다. 멘토링이라는 교사와 학생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통해 본교에서는 학생간의 집단따돌림 문제 해결 및 사교육비 근절, 면학분위기 조성 등 적잖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본교의 멘토링 제도가 알려지면서 외부 기업체와 독지가들의 후원도 이어지고 있으며, 멘토로 참여하고자 하는 유명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 2. 꿈을 향한 발걸음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꿈이 있기 때문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다. 술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다. 암울의 시대에 문지기를 자청했던 김구 선생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꾸었다. 젊고 나약하기만 했던 간디도 인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두 귀가 먼 절망의 늪에서도 베토벤은 위대한 교향곡을 꿈꾸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하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본교 학생 모습〉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 주는 날개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반올림하는 남해해성고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이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타 학교들과 구별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경영을 통해 본교는 신흥 명문고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으며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 ‘나’를 간직해 줄 수 있는 곳, ‘사이버 학교 역사관’

의령고등학교 교감 안명영

누구나 모교(母校)를 찾아가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학창시절과 함께 하는 모교의 그리운 이야기 소재들! 그러나 교무실 앞 교정에 있던 연못은 메워져 흔적도 없어졌고, ‘땡땡땡’ 학교 종은 사라졌으며, 운동장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밀동이 세 아름씨이나 되 는 일산(日傘) 모양의 쌍둥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운동장 정비로 없어졌다. 횡으로 서서 오줌발 참문 넘 기기 하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바뀌었으며, 비 오는 어느 오후 교장선생님 사택에 익지도 않은 감을 따먹으려고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지도 선생님께 붙잡혀 흠뻑 비 맞으며 운동장 돌기 열차려를 받게 했 던 그 나무는 뿌리째 뽑혀 없어졌다. 이렇게 학창 시절을 함께 하였던 대상을 찾아 당시를 회상하는 기 회를 갖기 위해 모교를 찾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모교를 찾으면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당시의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체성 형성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역사관(歷史館)’이다. 먼저 학교 내에 역사관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학교 내 역 사관을 만드는 한 방법으로, 졸업생 연도별 단체사진을 확대하여 학교 내에 순서에 따라 게시한다면 동 문들의 학교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모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학창시절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써 시·공을 초월하여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감격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재학 중인 자녀와 함 께 사진을 본다면 그 의의는 매우 클 것이다.

각급 학교의 학교장실 벽에는 역대 교장의 사진, 성명 및 근무기간이 기록된 액자가 부착되어 있고, 심지어 해방 이전에 개교한 학교에는 일본인 교장의 이름 및 퇴색된 사진도 부착되어 있다. 이는 교육 의 특성이며, 그리고 단위학교 경영의 책임자는 교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행 정 책임자가 교장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주인은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당연히 학생이다. 학생이 있기 에 학교가 있는 것이고, 학교가 있기에 교직원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사진도 학교 내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역사가 되고, 기억 속에 남아 있 으면 단지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학교 역사는 동문들의 사진이나 기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고 본다. 즉 학교는 선·후배의 연속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 등 시대적 상황으로 학교 역사관 존재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공간과 시설의 부족 으로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리적 공간 이 필요하지 않은 ‘사이버 학교역사관’의 개설이다. 학교홈페이지에 학교 역사관 배너(banner)를 만들 고 졸업 기수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탑재하는 것이다. 학교 초창기의 모습 등은 3차원 영상으로 제작하 여 사이버 학교역사관에 탑재하면 모교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학교 역사관 개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창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동창회 임원이 되면 임기 중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싶지만 마땅한 사업을 찾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은 동창회의 평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변천사, 기수별 동창회 사진 및 각종 자료(전체 조례, 수학여행, 소풍, 교련사열 등) 수집은 동창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역사관 꾸러나가기를 동창회의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생은 순간·순간이 모여진 것으로, 도형으로 비유한다면 선이라 할 수 있다. 선은 점이 모인 것으로 그 모양은 직선 또는 곡선이며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듯이, 인생은 각자의 시각이 모여 다양한 모습으로 꾸러진 것처럼 각기 고유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 구간을 두 점사이의 길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구간은 취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서 구간은 어느 출발점과 마침점 사이의 시간이며, 마침은 또 다른 구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모교를 찾는 이유는 현재의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발점 이전의 자신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배우고 옛 것을 배움에 있어, 옛 것이나 새 것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전통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나갈 새로운 준비! 사이버 학교 역사관을 개설하자





## 토요과학놀이터를 다녀와서

거창 아림초등학교 학부모 임향영

여느 때 토요일업일 같으면 이불 속에서 한참 뒹굴고 있을 정현이가 오늘따라 분주하다.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시간이 늦다고 성화다. 그동안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마침 우리 아림초등학교가 『과학교육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토요과학놀이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오늘 만큼은 꼭 정현이와 함께 하고 싶어 아침부터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고 아들 손을 잡고 거창 문화센터로 향했다.

9시 30분,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공연시간인 10시가 가까워오자 삼삼오오 모인 친구들로 문화센터 안이 제법 꽉 찼다. 시작을 알리는 어달선 선생님의 말과 함께 “와” 하는 아이들의 함성으로 ‘과학놀이 한마당’이 힘차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경남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과학놀이패 선생님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시간도 없으실텐데 언제 모여서 대본을 짜고 연극 연습을 하셨는지 놀라웠고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을 재미난 연극을 통해 쉽게 알려주고자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져 고마웠다.

암탐인 꼬순이를 잡으려는 요리사와 꼬순이를 보호하려는 수탉과의 재미난 대결이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과학이 숨어있었다. 특히 야광빛을 이용한 그림자 놀이, 레이저 광선이 만들어 내는 선들, 연극 공연 틈틈이 관중석에 나타난 빼에로 아저씨가 선사하는 김이 모락모락나게 열린 장미와 과자에 아이들이 환호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풀어 본 과학 퀴즈대회는 과학의 궁금함을 무대에 올라가 직접 체험하여 보여줌으로써 흥미로웠을 뿐더러 아이들이 서로 해 불러고 손을 드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고 놀라웠다.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한껏 자극시킨 연극 공연과 과학 퀴즈대회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보니 연극을 마친 선생님들과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개의 부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키보다 큰 비눗방울 만들기 놀이나 액화질소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바나나킵은 단연 인기였었다. 날씨가 더운데도 길게 늘어선 줄 뒤에서 나는 아들이 다른 부스 활동을 하는 동안 줄서주기를 했으니 말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두 눈을 반짝거렸으며 마술같이 피어오르는 액화질소가 만들어낸 안개를 보고 탄성을 질렀다. 또한 만들어진 바나나킵을 입에 넣고 코로 새어나오는 하얀 김



을 보며 서로 웃고 즐거워했다. 또 다른 부스, 녹말가루가 물과 섞이면서 강한 힘에는 강한 힘이, 약한 힘에는 약한 힘이 작용한다는 점탄성의 원리를 직접 만지면서 체험하니 아들은 너무나 신기해했다. 그리고 양주잔의 물의 양을 달리하여 잔을 문질렀을 때 진동이 일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는 것 또한 색다른 체험이었다.

놀이를 통한 과학체험활동 행사를 통하여 과학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과학이 생활 속에 함께 함을 느꼈으며 그동안 과학적인 호기심은 많았으나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이 되었고 앞으로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짧은 시간의 체험 속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체험활동이 흥미로운데 집중하는 나머지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는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는 약간 부족한듯 하였다. 우리 아이가 한가지라도 알았으면 하는 엄마의 욕심일수도 있지만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도 함께 전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여하튼 아이와 함께 즐거운 소풍을 다녀온 듯 유쾌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계속되는 토요과학놀이터에 많은 아이들이 참가하여 여러 놀이활동을 통해 과학과 더욱 친숙해지고 과학에 대한 탐구력과 창의력을 키워 우리 아람에서 미래 과학자가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 엄마 표 도시락

하동초등학교 학부모 이상숙

“엄마, 학교 급식소 다 지어도 도시락 계속해서 싸다니고 싶어요. 엄마가 싸주시는 도시락 가지고 관광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니까 꼭 소풍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최고예요! 내일도 난 김치 쌈밥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4학년인 딸 쌤이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 옥타브 높은 소리로 말을 했다.

하동초등학교 후관 건물과 급식소 신축 공사로 3, 4학년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구 신기초등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결정이 나자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건 아니야! 최악의 시나리오야!” 라며 머리를 흔들며 됐다. 어떤 이는 1년 동안 매일 아침 도시락 3개씩을 싸 일을 생각하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둔 예수의 겹세마네 기도가 저절로 생각날 정도라며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실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직접 싸보니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옛날에 먹거리도 변변찮던 그 시절에 친정 엄마는 어떻게 도시락 네 개씩을 다 싸내셨나 하는 고마움도 절절이 사무쳤다. 오빠들도 나도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반장을 해서 소풍갈 때마다 선생님들 도시락도 엄마가 직접 다 싸내셔야 했었으니까.

오늘도 아이들 주문대로 딸은 김치 쌈밥을, 아들은 주먹밥 도시락을 싸줬다. 묵은 배추김치 잎 부분을 물에 살살 헹구어서 짠 후 각종 야채를 썰어 볶아서 주먹밥용으로 준비한 밥을 그 김치로 싸는 것이 바로 김치주먹밥이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묵은 김치를 우려서 쌈을 싸 잡수시던 것을 살짝 업그레이드 시켜본 것이랄까.

요즘 아이들 입맛에는 잘 안 맞을 것인데 우리 딸은 이게 그리 맛있다는 것이다. 3학년인 아들은 유부초밥과 돼지고기 꼬치를 좋아한다. 싸 간 도시락을 여자아이들과 서로 나눠먹는 재미도 알았다. 또 하나 학교 급식 때는 먹기 싫은 반찬이라도 억지로 다 먹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학교 가는 맛과 밥맛이 저절로 난다는 것이다.

하여간 아침마다 뭘 싸까 하는 엄마의 고민과는 달리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났다. 도시락은 소풍갈 때만 싸 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점심시간마다 교실에 둘러앉아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밥과 반찬까지 나눠 먹으니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그늘에서 벗어나 이 얼마나 멋진 추억이요 값진 자산거리인가. 아이들은 지난 한 주간 사이에 누구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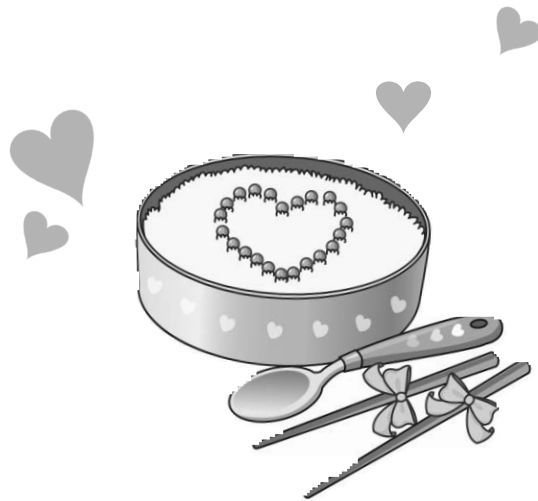
지난 봄 벚꽃 축제 때 차가 한 줄로 짝 밀린 광경을 보고 우리 아이가 “차가 꼭 우리학교 급식소에 아이들이 한 줄로 서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해 놀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제는 “엄마는 참 좋았겠다.

학교 급식 안 먹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도시락을 싸서 다녀서.”라는 거였다.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도시락 예찬론을 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안 찾아도 되고 마음 맞는 이들과 같이 먹고.....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였다. 벌써 애가 이리 컸나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겁이 났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을 싸낼까?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비는 것 같았다. 아니 화창하던 하늘이 금시 먹구름으로 뒤덮인 느낌이랄까, 아침까지만 해도 기껏 해야 1년인데, 아이가 좋아한다고 이것을 어느 선까지 싸줘야 할까? 이런 사치스런 고민에 파묻혀 있었기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나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잘 받아만 먹고서 그냥 입을 싹 닦을 뻔 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수고는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하고 무임승차만 엿보려고 들었던 것이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기 전 어떤 날은 빵으로 아침상을 대신할 때도 간혹 있었다. 솔직히 그럴 때는 나도 내 자신이 싫었다.

장을 담그는 날이면 “집집마다 장맛이 다 달라서 사람마다 그 기질이 다 다르다.”는 말을 엄마가 들려주시곤 했다. 내가 도시락 두 개를 각각 다르게 싸보니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도 같다. 네 살 때부터 일편단심 기관사가 꿈이던 아들이 올해 들어 제빵사로 바꾸더니 최근 도시락을 싸가면서부터는 요리사로 꿈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 아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꿈까지 달라지는 보배들이다.





## Odyssey of the Mind World Finals

- 2008 세계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를 다녀와서 -

창원 반림중학교 1학년 이 선 우

설렌다. 1년 전의 Odyssey of the Mind World Finals를 경험했던 감동을 살며시 떠올리며 또 다른 감동과 꿈을 위한 행진은 시작되었다.

지난 2월 2~3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경남 학생 4개 팀 가운데 창원 중등 팀(The Soul Power)인 우리는 금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가슴이 벅찼다. 기쁨도 잠시, 우리들은 더 넓고 높은 곳에서 세계의 학생들과 나란히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지는 영광에 힘입어 더 많은 배움의 노력을 거듭해야 했다. 먼저 팀원들의 단합과 함께 3개월 동안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시간은 대회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만들었다.

5월 31~6월 3일 동안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를 가진 후, 6월 4~9일까지는 백악관, 하버드대학, 브로드웨이, 유엔본부 등의 여러 곳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유난히 화창한 5월 30일 이른 아침 인천공항. 한국대표 팀은 워싱턴의 메릴랜드 대학을 향해 비행기를 탑승했다. 그때서야 실감이 나는 듯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일본을 경유해서 약 20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비행하면서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드디어 대회 장소인 'University of Maryland'에 도착하였다. 저녁 늦게 도착하여 숙소와 짐을 정리하고 무대장치들도 꼼꼼히 살폈다.

대회의 진행은 핀 교환 → 개막식 → 창의력축제 → 도전과제공연 → 자발성과제의 해결 → 폐막식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음날 드디어 'Opening Ceremony'를 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큰 대회장과 수천 명의 관중들을 보며 입장 준비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순간 'South Korea'가 불려지자 환호하는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입장하는 기분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솟구치게 하였다. 자랑스러웠다. 세계인들 앞에서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며 보였다.

핀 교환은 세계 각 국에서 참가하는 각 팀은 핀을 준비하여 대회기간 동안 다른 팀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친구가 되고 자기능력만큼 핀을 교환하고 수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모두가 하나였다. 핀마다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어 더욱 더 값지고 멋있었다. 버디 팀인 캘리포니아 학생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영어는 정말 필수라는 것 또한 한 번 더 깨달았다.

6월 2일. 이날은 대회의 도전과제에서의 한 영역인 '공룡 이야기(Dinostories)' 부분에서 우리 팀이 참가하는 순서가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우리의 모든 것(연극, 무대, 의상, 장치, 각종 아이디어)을 보여 줘야 하는 중요한 날이라 선생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대회 장소에 도착해서 연습을 해 볼 생각이었지만, 행사 일정도 빡빡하고 캠퍼스가 넓어 장비를 옮기고 준비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다행히 팀원들의 떨리는 마음도 관중석의 박수와 함께 열심히 공연을 하였다. 8분 이내에 끝내야 하는 과제이지만 조금 시간이 넘어 아쉬웠다.

하지만 다음날 팀원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협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자발성과제 해결에서 우리 팀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회기간 내내 각 나라의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하는 것에는 박수와 칭찬을, 조금 아쉬운 부분에서는 나에게도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하나 같이 밝은 표정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6월 3일, 오후 7시부터 가졌던 'Awards Ceremony'은 대회를 치르는 동안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한꺼번에 씻어 주는 시간이었다. 조금은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손과 손을 마주 잡은 학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시상식의 시간은 손에 땀을 나게 만들었고, 숨은 고루 쉬어 지지 않게 했다. 7등,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7등은 결코 못한 것은 아니란 생각을 했다. 시상대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

이제 남은 6일간의 미국에서 문화체험은 나에게 더 넓은 세상과 꿈을 품게 하였다.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뉴욕 등을 다니면서 백악관, 제퍼슨 기념관, 링컨 기념관, 항공우주박물관 등은 미국 정부의 힘을 마치 보여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상징인 유엔본부 건물의 내부는 150여 회원국이 기증한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세계대학이란 명성에 걸맞게 세계 영재들만 모여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그 명성을 떨치는 학교다웠다. 브라운대학, 예일대학, MIT공과대, 아이비리그대학 등을 다니면서 마음 속 깊이 와 닿았던 순간들은 메모와 사진으로 감동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넓은 곳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은 불쑥불쑥 솟아오르게 만들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못한 부분을 비난하기 보다는 잘한 부분을 격려하는 교육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대회 자체를 즐기며 캠퍼스 곳곳에서 자유롭게 놀면서도 성의를 다해 대회에 참여하는 외국학생들의 태도는 우리 학생들의 경직되고 수동적인 태도와는 다른 자연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었다. 작년보다는 한국 대표 팀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창의성의 부족함은 짚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실감케 해 주었다.

14살의 나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또 하나의 세상은 도전하는 아름다움과 희망을 안겨준 바로 그 때 려는 가슴 깊이에서 싹이 틀 것이다. 대회를 다녀오고 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탓인지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 할 수 있고, 창의성 공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Odyssey of the Mind is in the air, in my heart and everywhere. My team and I will reach together to find solutions now and forever. We are the Odyssey of the Mind"

"Odyssey of the Mind"의 이 정신처럼 우리들은 "대회에 참가하는 그 순간부터 승자" 이었을 것이다.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깨달은 멋진 도전의 무대였다.

"The Soul Power" Fighting!!!



## 토끼풀 꽃

사천여자중학교 3학년 손희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꽃’과 접하게 된다.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라도 지인의 경조사에 꽃 배달 한 번, 직장에 놓은 화분 하나, 아스팔트를 뚫고 자란 곳곳한 들꽃 한 송이에 눈길을 준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죽 소동 냄새, 짜디 짠 바다 냄새를 맡고 자라온 시골 소녀인지라 굳이 마음먹지 않더라도 하루에 열 번은 넘게 꽃을 보게 된다. 집 앞의 제비꽃, 학교 가는 길의 아카시아 꽃과 매일 보는 이름 모를 들꽃까지. 하지만 그 많고 많은 꽃들 중 단연 나에게 특별한 꽃을 꼽으라면 ‘토끼풀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는 그저 놀기 좋아하는 철부지였다. 우리 가족은 아빠께서 하시는 공장에 딸린 작은 집에 살았는데, 시내와는 꽤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름만 되면 우리 집 뒷마당은 키 작은 내 무릎을 덮는 거대한 풀밭이었다. 적어도 어렸던 내게 그 풀벌레 가득한 노지는 꽤나 무서운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이 나의 주 놀이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살 터울인 언니가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4학년이 되어 이제 막 고학년에 접어든 언니가 그때는 참 의젓해 보였었는데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라며 꾸물거리는 나를 뒤로 하고 기다랗게 자란 잡초들을 밟으며 꽤 멀리까지 걸어 들어갔던 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괜찮다며 들어오라고 하던 작은 손짓, 당당한 걸음걸이, 8살 내게는 너무나 위대했던 그 모습. 무섭다고 겁먹어 망설이던 나도 어느 새 옷에 풀물이 드는지도, 벌레에게 물린 지도 모르고 언니 곁에서 주저앉아 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내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나는 뒷집을 진 언니의 손을 보며 짐짓 혹 벌레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거부했지만 끝내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 손을 내민 적이 있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떨리는 손에 언니는 새하얀 반지를 끼워 주었다. 마법처럼 내 손가락에 꼭 맞는 토끼풀꽃 반지를 보며 신기해하던 내게 언니는 ‘동생이라서 주는 거야’라며 양껏 어깨를 으쓱였다.

토끼풀꽃은 집 주변에서 강아지풀만큼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평소 그냥 밟고 지나쳤던 못생긴 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검지위에 핀 그 새하얀 꽃이 언젠가 보았던 TV 드라마 속의 신부의 부케 다발만큼이나 예뻐다는 걸 언니는 알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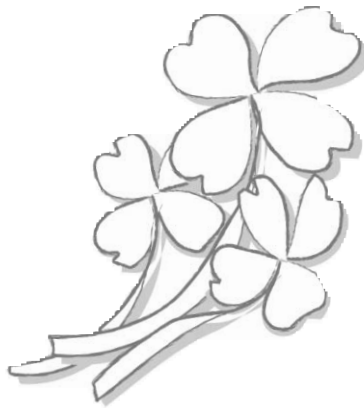
그 이후, 언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집 앞의 토끼풀꽃을 싹싹 끊어모았다. 내 운동화 끈 하나 제대

로 묶지 못하던 서투른 손놀림으로 꽃을 꺾어 엮었다. 언니는 내게 반지를 주었으니까 나는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목걸이를 만들어 선물로 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좀 많다 싶기도 했지만 그저 많이만 들어주고 싶다는 어린 마음은 열 손가락을 초록색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웬일인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자 정성껏 만들었던 토끼풀꽃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왜 우나는 엄마의 연달은 물음에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내 어린 마음은 그렇게 언니의 사랑으로 커 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듯 토끼풀꽃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꽃이다. 누군가에게는 값어치 없는 꽃일지 모르지만 토끼풀꽃이 나에게서는 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얽힌 특별한 꽃인 것이다. 특별히 잘나고 예쁘지 않더라도 내 친구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그냥 좋고 소중한 것처럼 나에게 토끼풀꽃은 그렇게 소중한 꽃이다.

6월이다. 들판에 토끼풀꽃이 지천인 6월이다. 언니와 옷에 풀물들이던 그 토끼풀밭에도 하얀 토끼풀꽃이 환하게 피어 있으리라. 훌쩍 커버린 언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없다. 하지만 어찌다 토끼풀꽃에 눈길을 주게 되는 날이면 내 마음은 토끼풀꽃처럼 환해진다.





###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칭찬학습법 / 후쿠도메 쓰오시

지음 : 정선철 옮김 / 서울: 이매진 (2008, 4 발행)

- 1965년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현재까지 평생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써 온 일본의 교육계 원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아이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그는 아이를 제대로 칭찬하는 일은 부모나 선생님만의 몫은 아니고 지역, 마을, 동네에서도 아이를 같이 칭찬하며 키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아이와 교감하고 신뢰를 쌓으며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법을 소개한다.



### 영어 고수는 영어 고전을 읽는다 1,2

조종길, 정태균 공저 / 서울: 프로네시스 (2008, 5 발행)

- 당대의 문제의식을 밀도 있는 문장에 담은 고전을 뽑아 영어 문장 해석에 도움을 주는 문법적 설명을 보냈다. 지은이는 “이 책의 목적은 고전이 던지는 어렵고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맞서서 풍부한 교양과 냉철한 판단력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번역자 없이 문장을 직접 대면해 한 문장 한 문장 짚어나가는 과정은 어떤 피상성과 안일함도 용납하지 않고 오로지 열정과 노력만이 고전에 가닿는 정도임을 깨닫는 길”이라고 밝혔다.





## 공부도둑

장희익 지음 / 서울 : 생각의 나무 (2008. 4 발행)

- 배우는 사람 장희익 선생의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공부인생, 저자의 집안 내력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어린 시절 학업을 중단했던 이야기, 청주공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유학 시절 등과 같이 한평생 몸과 마음으로 공부한 장희익의 공부 여정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자기 안에 있는 스승을 통해 배우는 법', '학문의 길에도 야생이 있다'는 장희익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공부 길을 만날 수 있다.



## 샘에게 보내는 편지

대니얼 고틀립 지음 : 이문재, 김명희 공동번역 서울 : 문학동네 (2007. 9 발행)

- 이 책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저자가, 자폐 진단을 받은 손자 '샘'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의 지혜를 32통의 편지로 기록한 것이다. 손자 '샘'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심을 담아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속에는,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 아픔이 스스로 치유되도록 돕는 방법 등이 들어 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행복하라는 교훈도 만나게 된다. 그속에는 자이를 찾아 헤매는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힘이 깃들어 있다



## 펼떡이는 길거리 경제학

이영직 지음 - 서울 : 스마트비즈니스 (2007. 6 발행)

- 『펼떡이는 길거리 경제학』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하여 설명한다. '미인은 왜 콧대가 높은 것인지, 독점 상품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경제학 논리로 풀어본다. 아울러 '시장을 움직이는 힘, 경제를 지배하는 원칙들, 교육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세상을 움직이는 속설들 등 유용한 지식도 소개한다. 어렵게만 느꼈던 경제원리를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원지상갤러리



발전하는 거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거제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였는데,  
채색을 탈피해 수묵의 농담만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그동안 실경산수화를 그려오다 근간에는 수묵의 느낌에 빠져  
수묵만으로 항구나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 한겨제연초등학교 교사
- 부산교대 및 진주교대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입선
  - 개천미술대전 특선 4회(추천작가)
  - 한국서화명인대전 우수·특선
  - 신사임당미술대전 특선
- 현대미술대전 경남도전, 경남교원에능경진대회 등 다수 입상
  - 1994~현재, 초대전 및 단체전 80여회
- 개인전 1회(항구이야기전, 2006고양세계꽃박람회전시관)
  - 경남교원에능연구대회, 현대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 전통미술대전 심사 위원 역임
- 한국화 지도에 관한 개인연구발표 및 현장 연구 3회 입상



노순영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http://www.gne.go.kr>